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1년 2월

교육학석사(특수교육)학위논문

청각장애 중학교 음악교과 운영과  
학생들의 음악활동 실태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나 희 정

# 청각장애 중학교 음악교과 운영과 학생들의 음악활동 실태

The Actual States of the Music Education for the Middle  
Schools for the Hearing Impaired and Music Activity of the  
Students.

2011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나 희 정

# 청각장애 중학교 음악교과 운영과 학생들의 음악활동 실태

지도교수 정 은 희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특수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10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나 희 정

**나희정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합니다.**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 정 연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허 유 성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정 은 희    인

2010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목 차

표 목차 .....	iii
그림목차 .....	v
ABSTRACT .....	vi
I.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문제 .....	3
3. 연구의 제한점 .....	4
II. 이론적 배경 .....	5
1. 음악과 교육과정 .....	5
2. 음악과 교수·학습지도 관련이론 .....	13
3. 청각장애 학생의 음악 교육 .....	16
4. 선행연구고찰 .....	17
III. 연구 방법 .....	22
1. 연구 대상 .....	22
2. 조사 도구 .....	24
3. 연구 절차 .....	25
4. 자료 처리 .....	26

IV. 연구 결과 .....	27
1. 청각장애 중학교 음악교과의 실태 .....	27
2. 청각장애 중학교 음악수업의 문제점 및 개선점 .....	40
3. 청각장애 중학교 학생들의 음악활동 실태 .....	45
V. 논의 .....	60
VI. 결론 및 제언 .....	77
1. 결론 .....	77
2. 제언 .....	79
참고문헌 .....	81
부    록 .....	85

## 표 목 차

<표 III-1> 교사의 일반적인 특성 .....	22
<표 III-2> 학생의 일반적인 특성 .....	23
<표 III-3> 교사용설문지 구성 및 내용 .....	24
<표 III-4> 학생용설문지 구성 및 내용 .....	25
<표 IV-1> 음악실 환경 조사 .....	27
<표 IV-2> 악기 보유 현황 .....	28
<표 IV-3> 기자재 보유 현황 .....	29
<표 IV-4> 교육과정 사용 현황 .....	29
<표 IV-6> 수업횟수 및 단위수업시간 .....	30
<표 IV-5> 수업 시수의 적절성과 교과서의 적합성 .....	30
<표 IV-7> 음악활동 중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역 .....	31
<표 IV-8> 음악 교육의 필요성과 이유 .....	32
<표 IV-9> 사용하는 자료 .....	33
<표 IV-10> 의사소통방법 .....	33
<표 IV-11> 노래 부르기 지도 방법 .....	34
<표 IV-12> 악기 연주하기 지도 방법 .....	35
<표 IV-13> 음악 만들기 지도 방법 .....	36
<표 IV-14> 감상하기 지도 방법 .....	37
<표 IV-15> 다양한 학습매체의 활용 .....	38
<표 IV-16> 가장 잘 지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 .....	39
<표 IV-17> 가장 지도하기 즐거운 영역 .....	39
<표 IV-18> 학생들의 음악 생활화를 위한 과제물 .....	40
<표 IV-19> 가장 지도하기 어려운 영역 .....	41
<표 IV-20> 가장 지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영역 .....	42



<표 IV-21> 학생들 지도 시 가장 큰 어려움 .....	42
<표 IV-22> 문제 해결 방법 .....	43
<표 IV-23> 교수·학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	44
<표 IV-24>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연수 내용 .....	44
<표 IV-25> 소리의 인식 정도 .....	46
<표 IV-26> 악기 소리의 구분 .....	46
<표 IV-27> 수업 중 소리를 듣는데 방해가 되는 것 .....	46
<표 IV-28> 일상생활 중 들리는 소리 .....	47
<표 IV-29> 가장 잘 들리는 악기 소리 .....	48
<표 IV-30> 음악활동의 흥미 .....	49
<표 IV-31> 음악의 인지 정도 .....	50
<표 IV-32>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 .....	50
<표 IV-33> 가장 즐거운 음악 활동 .....	51
<표 IV-34> 가장 어려운 음악 활동 .....	51
<표 IV-35> 가장 배우고 싶은 악기 .....	52
<표 IV-36> 가장 이해하기 쉬운 음악 수업 방법 .....	53
<표 IV-37> 가장 이해하기 힘든 음악 수업 방법 .....	53
<표 IV-38> 평상시 음악 감상 여부 .....	54
<표 IV-39> 감상 매체 .....	55
<표 IV-40> 음악을 들을 때의 기분 .....	55
<표 IV-41> 음악 발표회 경험 .....	56
<표 IV-42> 음악회 가본 경험 .....	57
<표 IV-43> 노래방 선호도 .....	57
<표 IV-44> 가족 중 전공자 여부 .....	58
<표 IV-45> 자신이 음악을 전공한다면 원하는 전공 영역 .....	58
<표 IV-46> 기타 음악 수업과 음악 교육에 대한 자유 기술 .....	59

## 그림 목차

[그림 Ⅱ-1] 음악과의 활동 체계 .....	7
[그림 Ⅱ-2] 음악과의 목표 체계 .....	11

## ABSTRACT

### The Actual States of the Music Education for the Middle Schools for the Hearing Impaired and Music Activity of the Students.

by Hee-Jeong Na

Advisor : Prof. Eun-Hee Jeong, Ph. D

Major in Speci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is the research of actual condition for condition about music course and music activity of student from the middle school for hearing impairment.

This researcher feel necessity to do this study because existing studies are not enough to describe how music class is going and what are music activity or demand of student from the middle school for hearing impairment.

Therefore, the subject of study is determining condition of music course and music activity of the middle school for hearing impairment. This researcher wants to develop necessary music class for student with finding better music professor and learning method.

Survey papers from 20 teachers and 143 students of hearing impairment from this nation, who are enable to complete survey, are research methods to do this survey.

Research categories are 3 categories, which are condition of music course from the middle school for hearing impairment, problem and improvement of music class for hearing impairment, and condition of music activity by

students of hearing impairment.

First, from the condition of music course from middle school for hearing impairment, environment of music classroom is insufficient, and instruments and equipments are not enough. Moreover, common fundamental education process for the public has inappropriate sections for students of hearing impairment. Textbook is not inappropriate, too.

Second, about problem and improvement of music class from the middle school for hearing impairment, section of listening and music creation from area of music activity is not sufficiently handling. Necessity for balancing each section is required, and four sections should be managed in integrating way. Also, professionalism of teacher must be increased, and section of communication needs to be developed. Self development by training and development of education process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hearing impairment are solutions for this.

Third, after this researcher determines condition of music activity from students of hearing impairment, most of students like the music, and they are interesting about music. However, From the section of practice of the music, they have less experience about concert than that of normal student. An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concert needs to be provided. Also, students like to sing a song. Teachers should research about topic of singing for the student because they have to provide opportunity of positive participation for music class.

By these factors, this researcher will develop education process and textbook that reflect characteristics of student of hearing impairment. This researcher will approach to listening and music creation, which are not sufficiently handling in the music class, with creative methods. This researcher will provide educational opportunity about various music activities to students of hearing impairment.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음악은 사람의 느낌과 생각을 소리를 통해 표현하고 향수하는 예술로, 예로부터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쳐왔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음악은 살아가면서 어떤 장소를 가든지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자신을 표현하고 자기를 발견해 가는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심미적인 작용을 한다.

음악이 모든 시대와 문화권의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점은 음악이 단순히 개인적 현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음악은 가능한 최선의 미적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에 기여하며, 공동체 안에서 개인을 발견하고 경험함으로써 인간의 사회적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이와 같은 음악교육을 위해 학교는 음악을 통하여 잠재력과 창의성을 계발하고 인간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며, 음악 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전인적인 인간이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특수 교육 대상 학생들은 음악 활동을 할 때 정신적 · 신체적 어려움으로 인해 일반 학생들에 비해 반응을 보이거나 학습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들을 최소한의 제한적인 환경 속에서 가장 최대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로 특수 교육의 목적이다.

청각장애 학생은 청력 손실로 말미암아 듣기와 자기의 생각을 음성 언어로 자유롭게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청력 손실의 정도와 유형, 손실이 발생했을 때의 연령, 청각장애 학생의 지능, 가정과 지역 사회에

서 청각 장애 학생에 대한 요구 능력, 청각 장애 학생의 언어적, 교육적 경험 정도 등에 따라서 교육적 요구가 달라진다(권순황, 2008).

가드너(H. Gardner)의 다중지능이론(Multiple Intelligence Theory)은 사고력과 창의성을 최대한 신장시키면서 각 학생이 지닌 다양한 능력을 발굴, 개발할 것을 다중지능이론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권덕원 외, 2006, 재인용). 음악은 소리를 통하여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시간적 예술로 다양한 음악적 경험은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며 좀 더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을 누리도록 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청각장애학생들의 경우, 모두 청력을 손실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과 잔존능력을 최대한 살려서 음악활동을 통해 자아실현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교사의 몫이다. 특히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음악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심미적인 체험을 하는 것은 중요한 교육의 한 부분이다.

음악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음악을 통한 심미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은 그리 많지 않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듣고 연주할 수 있는 기회들도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학교마다 교육과정이 다르고 음악교육에서 강조되는 영역들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음악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가르치기에 용이하고 전문화된 영역들을 더 선호하다 보니 학생들의 수준과 요구보다는 자신의 전공에 맞게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청각장애학교에서의 음악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떤 방법을 통해 효과적인 음악 수업이 전개되고 있을까? 과연 청각장애학생들은 얼마나 음악 수업을 선호하고 있으며, 어떤 음악 활동을 좋아하고, 자신 있게 음악 수업에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고 있을까? 그리고 음악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교사는 어떤 방법으로 수업에 임해야 할까?

김순연(2006)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청각장애학교 음악교육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음악교육을 위해 가장 필요한 연수를 알아본 결과 교사들은 청각장애아의 특성을 고려한 음악과 자료 제작 및 활용 방법을 필요로 한다

고 하였다. 거기에 비추어 볼 때, 청각장애아동을 위한 음악 교육을 위해 교사는 음악교육의 전문성과 함께 청각장애아동을 보다 잘 이해하고 필요한 교육적 지원을 해야 하며, 교수·학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방법과 전략을 개발하여 적용해야 한다(김영옥, 2007).

지금까지 청각장애학교 학생들의 음악 교육에 관한 연구는 청각장애학교 교사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권은영(2006), 김순연(2006), 장경화(2006) 등이 있고, 특수학교의 음악 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로 김지영(2000), 이조은(2007) 등이 있다. 또한 기타 교과 교육과 관련된 연구 중 음악의 효과에 관한 연구로는 김현숙(2008), 김혜미(2006), 김종예(2010), 이지연(2008), 정현진(2007), 최혜정(2007) 등이 있고, 음악과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연구로는 이소영(2005), 전해경(2008), 정현진(2007) 등이 있다. 하지만 중학교 음악 교과 운영 실태와 학생들의 음악활동실태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다. 또한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에서 ‘생활화’영역을 별도의 독립된 영역으로 구분·제시하여 일상생활 속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교사들의 인식과 학생들의 생활화 정도를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청각장애학생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어떤 방법으로 수업을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학생들의 음악 활동에 대한 실태와 요구 내용, 생활화 등을 조사하여 좀더 다양한 접근과 필요성을 모색하여 효과적인 음악수업을 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청각장애 중학교 교사들의 음악교과 실태와 학생들의 음악활동 실태를 알아보고,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각장애중학교 음악교과의 운영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청각장애학교 음악수업의 문제점과 개선점은 무엇인가?

셋째, 청각장애학교 학생들의 음악활동의 실태는 어떠한가?

###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전국의 청각장애학교의 중학생 중 설문지를 통해 직접 설문을 작성할 수 있는 학생들에 한하므로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지 못하거나 설문지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의견이 포함되지 않았다.

둘째, 교수 · 학습 방법은 얼마든지 다양하고, 학생들의 요구와 실정에 맞게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으나, 설문지의 한계로 인해 좀더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교수 · 학습방법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하였다.



## Ⅱ. 이론적 배경

### 1. 음악과 교육과정

#### 1)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 (1)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현행 중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준하여 편성·운영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음악과 교육과정의 성격, 목표, 내용, 교수·학습방법, 평가 등의 내용을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해설서를 바탕으로 알아보았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 ① 성격

음악은 모든 시대와 문화권의 사회에 중요한 동인으로 이는 단순히 개인적 현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음악은 개인의 자아실현에 기여하며, 공동체의 정체성과 통합을 위한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음악 교과는 학생에게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고, 음악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과 음악성을 기르며, 풍부한 음악적 정서를 함양하도록 체계적으로 도와줌으로써 음악을 생활화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교과이다. 그러므로 음악을 느끼게 하고 음악의 기본 감각과 기초 기능을 기르며, 음악 경험의 질적 향상과 다양화를 위해 탐구하고 연마하도록 하는 한편, 창의력을 발휘하면서 능동적으로 표현하고 수용하도록 지도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음악 교과는 다양한 악곡 및 활동을 스스로 경험하게 하며,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 음악적 능력과 창의성을 계발하고, 풍부한 음악적 정서와 애호심을 함양함으로써 음악의 가치를 인식하고 생활화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다.

## ②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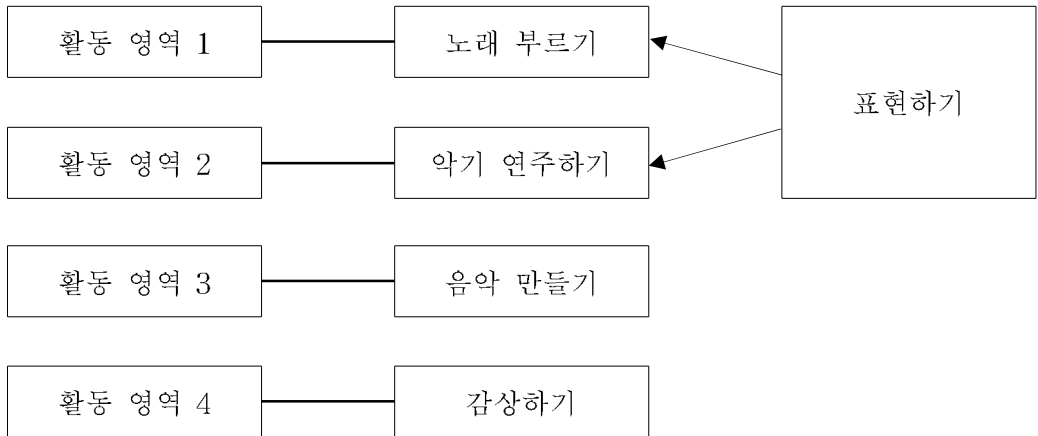
중학교 음악과 교육의 총괄목적은 다양한 악곡 및 활동을 통하여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고, 음악의 기본 능력과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감상하는 능력을 기르며, 풍부한 음악적 정서와 음악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가지게 하는 것이다.

## ③ 내용

음악 활동과 음악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 생활화를 강조하기 위해 ‘활동, 이해, 생활화’의 대영역을 선정하고, 활동 영역을 이해 영역 앞에 두었다. 활동 영역에서는 표현하기,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음악 만들기, 감상하기와 같이 구체적인 음악활동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이해 영역에서는 음악적 개념, 아기와 악곡의 특징, 음악사 등 포괄적인 이해의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생활화 영역에서는 학교 내외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ㄱ. 활동

교육과정 활동 영역에서는 ‘표현하기’,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음악 만들기’, ‘감상하기’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표현하기’는 노래와 연주 활동 영역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학습 요소이므로 독립적인 활동으로 다루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활동 영역은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음악 만들기’, ‘감상하기’의 네 가지로 이해되어야 한다. 활동 영역의 하위 학습 영역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Ⅱ-1]과 같다.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2008).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IV). p.143.

[그림 II-1] 음악과의 활동 체계

첫째, 노래 부르는 것은 가곡, 민요 부르기, 여러 가지 국악곡(시조의 초장, 창작 국악곡, 판소리)듣고 따라 부르기, 다른 나라(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노래 부르기, 합창하기, 무리 없는 발성으로 노래 부르기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악기 연주하기는 초등학교에서 익힌 악기들의 기본적인 연주 능력을 바탕으로 심화된 악기 주법을 익히고, 악곡의 특징을 정화하게 표현하며, 악곡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연주 능력 함양을 목표로 한다. 연주하기에는 바른 주법으로 연주하기, 가락 악기 연주하기, 합주하기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음악 만들기는 중학교에서 창작 활동은 즉흥적으로 표현하기, 간단한 형식의 가락 짓기, 다양한 형식의 가락 짓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음악 재구성하기,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음악 만들기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감상하기는 음악 교육의 모든 세부 영역에 걸쳐 나타나는 포괄적인 활동이다. 활동 영역으로서의 음악 감상은 음악의 표현 요소 및 음 현사에 대한 감지력 그리고 음향에 대한 민감한 반응력을 길러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심미적 감수성을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ㄴ. 이해

교육과정에는 이해 영역이 통합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좀 더 체계적인 설명을 위해 유사 한 요소들을 리듬, 장단, 가락, 화성, 형식, 악기의 종류와 음색, 악곡의 특징, 악곡의 종류로 범주화하였다.

#### ㄷ. 생활화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은 내용 체계에서 ‘생활화’를 별도의 독립된 영역으로 구분·제시하고 있다. ‘생활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교의 음악 활동을 통하여 습득된 창의적, 예술적 능력을 일상생활 속에 적용·실천함으로써 개인과 공동체로 하여금 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음악을 즐기는 태도 갖기, 우리 음악의 가치 인식하기, 학교 내외에서 음악 발표하기, 학교 내외의 음악 행사에 참여하기, 생활 속에서 음악 활용하기, 사회 속에서 음악의 역할 탐구하기로 제시되어 있다.

#### ④ 교수·학습 방법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성공적인 교수·학습을 위해서 다양한 악곡의 활용과 학습 환경의 최적화, 학생들의 수준, 흥미도, 지역적 현실을 고려하는 교수법을 강조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ㄱ. 학생들에게 충분한 음악적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가운데 실음을 통하여 음악 용어와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ㄴ. 음악 표현 능력과 음악에 관한 포괄적 이해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영역별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도한다.
- ㄷ. 개별 학습, 모둠별 협력 학습, 프로젝트 수행, 포트폴리오 등의 다양한 방법을 적절히 활용한다.
- ㄹ. 사진, 영상과 같은 전통적 매체와 디지털 미디어 등의 다양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한다.
- ㅁ. 학생의 요구와 학교의 실정에 따라 적절한 악기를 선택하여 지도한다.

ㄷ. 음악 교과와 타 교과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지도할 수 있다.

### ⑤ 평가

음악과의 평가는 교과의 성격과 교수·학습 내용에 따른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평가가 되도록 한다. 평가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 ㄱ. 각 영역의 성격과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함으로써 타당성과 신뢰성이 높은 평가가 되도록 한다.
- ㄴ. 평가는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중심으로 평가 하되, 학습 과정에서 관찰되는 행동과 태도의 변화 등도 반영한다.
- ㄷ. 실기 평가, 실음 지필 평가, 관찰, 자기 평가, 상호 평가, 포트폴리오, 온라인 평가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 ㄹ. 정시 평가와 수시 평가를 되도록 고루 활용한다.
- ㅁ. 실기 평가의 내용, 과제, 매체 등은 학생과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제시하되, 되도록 선택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 (2)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음악교과 관련 사항

2009 개정 교육과정은 2011년 초등학교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시행, 확대될 예정이다. 그 주요 내용은 학년군 및 교과군의 도입하였으며, 수업 시수가 적은 교과의 집중 이수제를 통한 학년별 배울 과목의 축소, 창의적 재량 활동 도입하였다. 이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공통교육과정과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선택교육과정으로 편성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공통교육과정의 교과는 교육 목적상의 근접성, 학문 탐구 대상 또는 방법상의 인접성, 생활양식에서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교과군으로 재분류하였는데 음악교과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에서 교과(군)는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

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로 하여 기존의 음악과를 예술 영역으로 묶어 음악과 미술을 한 교과(군)으로 하였다.

② 중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중점에서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수업 시수를 20%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예술(음악/미술)은 음악과 미술 교과를 중심으로 편성·운영한다.

④ 중학교 공통 교육과정으로 예술(음악/미술) 교과(군)의 최소 수업 시수는 272시간으로 편성되었다.

## 2) 기본교육과정

### (1) 2008년 개정 특수학교 음악과 기본 교육과정

청각장애 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근간으로 하되 학생들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기본교육과정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현행 2008년 개정 특수학교 음악과 기본 교육과정의 성격, 목표와 내용, 학습 지도 및 평가에 대해 음악과 기본 교육과정 해설서를 통해 살펴보았다(2009, 교육과학기술부).

#### ① 성격

2008년 개정 특수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음악 교과의 본질을 토대로 특수학교 음악 교과의 성격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학생들의 잠재된 음악적 능력을 계발한다.

둘째,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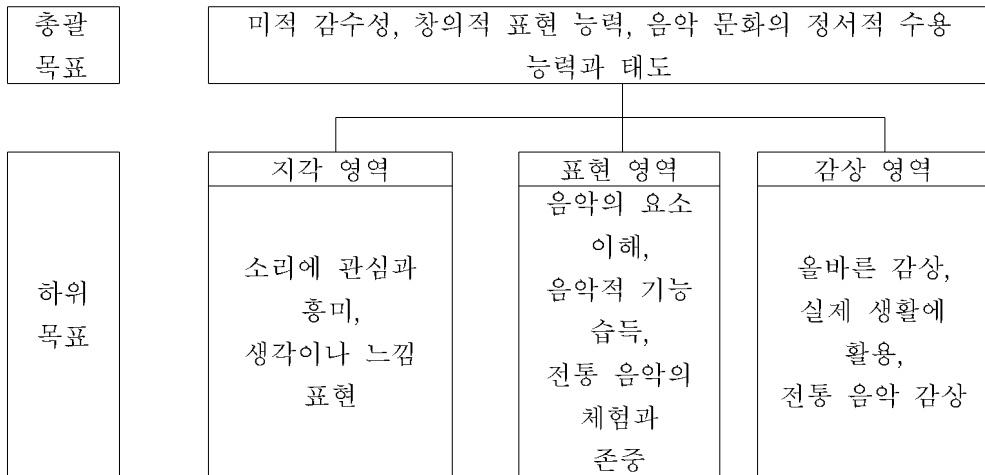
셋째, 음악에 대한 개념의 이해를 통해 풍부한 정서를 기르게 한다.

넷째, 음악 활동을 바탕으로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다.

다섯째, 감상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음악적 경험을 제공한다.

## ② 목표

음악과는 일상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이를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음악 활동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풍부한 정서를 함양하고 자발적인 표현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음악과의 총괄목표와 하위목표의 체계를 정리하면, [그림 II-2]과 같다.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2009). 특수학교 교육과정 해설(II). p.328.

[그림 II-2] 음악과의 목표 체계

## ③ 내용

기본 교육과정의 내용은 지각 활동, 표현 활동, 감상 활동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각 활동의 1단계에서는 생활 속의 소리 듣기, 소리의 특징 구별하기, 여러 가지 소리에 대한 느낌 알기가 있으며 2단계에서는 음악의 요소 알기, 다양한 악곡 듣고 느낌 표현하기, 음악의 쓰임새 알기가 있다. 3단계에서는 음악의 요소 알기, 음악 기호 알기, 악기의 종류 알기, 연주 형태와 음악의 쓰임새 알기가 있다.

표현활동의 1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리 내기, 주변 사물을 이용하여 내기, 타악기 다루기가 있으며, 2단계에서는 바른 자세로 자연스럽게 노래 불기, 리듬 악기 다루기, 신체를 이용하여 소리 만들기가 있다. 3단계에서는 바른 자세로 노래 부르기, 악기 다루기, 신체를 이용하여 소리 만들기가 있다.

감상 활동의 1단계에서는 바른 감상 태도 기르기, 다양한 음악 감상하기가 있으며, 2단계에서는 다양한 연주곡 감상하기, 생활 속의 음악으로 여가 활동하기가 있다. 3단계에서는 악곡의 주제와 내용 이해하기와 음악을 여가 활동으로 활용하기가 있다.

#### ④ 교수 · 학습 방법

음악과의 교수 학습 활동은 학생의 특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각각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각 활동은 리듬, 가락, 화음, 음악적 표현의 개념으로서 셈여림, 빠르기, 음색, 그 밖에 형식과 성부의 짜임새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음악적 개념으로는 장단, 가락, 표현, 음색, 양식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지각 활동은 하나의 학습 요소로 분리하여 활동하기 보다는 표현 활동, 감상 활동과 연계하여 지도하며, 생활과 관련된 것을 소재로 하여 동기부여 해주는 것이 좋다.

표현 활동은 크게 노래 부르기, 악기 다루기, 음악 만들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기의 생각과 경험 또는 느낌을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내게 하여 표현력과 창의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노래 부르기에서는 아름다운 노래를 통해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표현하도록 하며 음악적 개념을 형성하고, 정확한 음정과 박자로 부르는 것 뿐 만 아니라, 바른 자세 취하기, 바른 호흡하기, 바른 입모양으로 소리내기 등을 할 수 있도록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야 한다.

둘째, 악기 다루기는 악기 연주를 통해 자신감을 형성하도록 중점을 두는



데, 미숙한 연주라도 반복적으로 자연스럽게 음악적 기능을 터득할 수 있도록 한다. 다양한 소리를 체험하고 즐기는 활동으로 연주력을 기르고, 음악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음악적 소질을 계발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음악 만들기는 장애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리 만들기와 노래 만들기로 구분하여 지도하면 효과적이다. 소리 만들기는 신체나 물체를 가지고 다양한 소리를 만들거나 주변의 소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소리를 듣고 흉내 내기, 목소리를 여러 형태로 조절하기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한다.

노래 만들기는 노래로 문답하기, 노래 가사를 바꾸어 부르기, 상황에 맞는 노래 찾아 부르기, 노랫말에 간단한 리듬 붙이기, 이야기를 노래로 나타내기, 간단한 가락을 형식에 맞게 짓기 등을 통해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셋째, 감상 활동은 다양한 소리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토대로 음악을 듣고 음악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활동이다. 학생들은 같은 자극이나 활동에서도 다양한 반응을 보이므로 표현과 놀이를 통하여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지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효과적인 감상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음악을 들으며 그림이나 시각 자료를 활용하고 몸으로 표현을 하는 체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시끄럽고 빠른 템포의 음악은 지양하고, 안정된 연주를 많이 들어 음악을 들을 줄 아는 귀를 갖게 한다.

## 2. 음악과 학습 지도 관련 이론

미국의 교육 심리학자 가드너(H.Gardner)는 음악적 지능이 다른 지능에 비해 가장 먼저 반응한다고 주장하였다. 음악적 경험과 활동은 인간의 지능 발달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감정 계발과 정서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음악과 학습 지도에 관련된 이론을 특수학교 음악과 기본 교육과정에 제

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해보고자 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 1) 달크로즈 접근법에 의한 음악 지도 방법

스위스의 음악 교육자 달크로즈(Emil Jaques-Darcroze, 1865~1950)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으로 음악적 리듬감을 타고 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체계적인 훈련 없이는 음악적으로 발전하기 어려우므로 음악과 신체 표현의 절대적 결합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음악적 능력의 발달을 위하여 음악에 따른 신체적 움직임인 ‘유리드믹스’(euthytmics), 악보를 보고 계이름으로 부르는 솔페이지(solfege), 일정한 패턴을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즉흥연주(improvisation)의 세 가지 음악 지도 방법을 제시하였다.

### 2) 코다이 접근법에 의한 음악 지도 방법

헝가리의 작곡자이자 음악 교육자인 코다이(Zoltán Kodály, 1882~1967)는 “음악이 모든 사람의 것이다.”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코다이의 사상은 페스탈로치(Heinrich Pestalozzi)의 “모든 사람에게 노래 부르기와 음악적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는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다. 코다이는 음악적 능력의 결정적 시기가 6세~16세라고 주장하면서, 이 시기의 학생들에게 음악의 교육적 유용성을 강조하고 자신의 음악 지도 방법을 적용하였다.

코다이 교수법의 기본 원리는 민요를 통한 노래 부르기과 리듬 감각 및 청각을 발달시키는 학습이다. 노래 부르기를 통하여 음악적 능력을 키우고, 정서적인 발달과 지적인 감각을 키워 나가며, 이와 동시에 노래에 담긴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악보를 보고 부르는 능력인 ‘오디에이션’(Odiation), 악보를 듣고 적을 수 있는 능력, 음을 읽는 독보력과 기보법의 습득을 음악 교육의 주요 목표로 삼았다.

### 3) 오르프 접근법에 의한 음악 지도 방법

독일의 음악 교육자 오르프(Carl Orff, 1895~1982)는 달크로즈의 유리드믹스 원리를 기초로 하여 자신의 음악 지도 방법을 개발하였다. 오르프는 직접 경험을 통한 연주를 중요시 하였는데, 놀이와 대화를 통한 음악 활동, 신체 활동, 기악 활동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음악 활동을 중시하였으며, 리듬, 신체, 언어 등이 하나로 통합된 ‘기초 음악’(elemental music)을 강조하였다. 학습 지진아 또는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에 오르프의 교육요 작품 ‘슐베르크’(Schulwerk)는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오르프의 음악 활동은 일종의 다감각적인 음악 치료법으로 응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체의 한 중요한 부분이 결여되었을 때에 재활의 기능으로서 오르프 악기를 이용한 음악 요법의 시도가 가능하다. 장애 학생들은 협동 작업을 통해서 즉흥적으로 또는 독창적으로 음악을 표현할 수 있고, 개인의 음악적 표현을 형식화하여 자신의 음악을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다.

### 4) 스즈키 접근법에 의한 음악 지도 방법

일본의 음악 교육자 스즈키(Shinichi Suzuki, 1910~1998)는 ‘스즈키 교습법’을 개발하였는데 악보를 읽는 법을 가르치는 것보다 먼저 음악을 듣고, 모방하고, 반복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음악은 마치 말을 배우듯 연주법을 익힐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독창적인 교습법을 창안하였다. “모든 인간은 훌륭한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스즈키는 음악도 조기 교육을 강조하였으며, 학생들에게 단계적으로 끊임없이 지도하고 적절한 음악 환경을 제공하면 누구나 음악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 5) 컴퓨터를 활용한 음악 지도 방법

음악을 지도하는 한 방법인 컴퓨터는 오늘날 학교와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컴퓨터를 활용한 음악 수업은 개별화 수업과 반복 학습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며,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그러나 자연의 소리가 아닌 인위적인 전자음에 의한 음악은 학생들의 심미감 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 3. 청각장애학교 학생의 음악교육

우리 나라의 청각장애 교육은 1909년 평양에서 R. S. Hall에 의하여 시작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때의 교육과정은 잘 알 수 없으나, 1914년 평양에서 개최된 동양맹아교육 회의의 내용에 의해 언어 지도가 주된 내용이었을 것으로 추측한다(김승국 외, 1998). 1912년 조선총독부는 제생원 관제를 제정·공포하는데 이 때 제생원 맹아부 학생과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농아생의 교과목에는 음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후 교육과정의 1차 ~ 5차의 변천 과정을 지나며 제1차 교육과정(1967-1978년)이 제정된 시기에 중학부 교과목 10과목 중 음악 교과가 포함되며, 제 2차 교육과정(1979-1983년)에서는 초등부에서 음악 과목이 상향조정되었으며, 중학부의 교과는 종전의 음악을 그대로 편성하고, 고등부에서는 보통교과목에 음악이 편제되어있고 5차에 걸쳐 음악교과는 꾸준히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2008 개정 특수학교 교육과정 까지 이어지고 있다(원영조 외, 1990).

한 가지 유념할 사항은 청각장애학교에서의 음악과에서의 특별지침으로 여러 가지 기자재를 이용하여 춤, 손뼉, 수화 노래 등을 포함한 신체적 리듬 표현을 지도하여 음악의 즐거움을 느끼며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가창 학습 시 선율보다는 리듬의 표현과 가사의 정확한 발음 익히기에 중점을 두는 방법, 또한 기악 학습 시 리듬악기 연주에 중점을 두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이규식 외, 2004).

학교의 음악 교육은 모든 국민들에게 그들의 생활 속에 깊이 스며있는 음악의 역할과 가치를 인식시켜 주며, 그들이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든간에 음악의 장점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능력을 심어준다. 또한 음악은 중요한 문화유산으로서 높은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권덕원 외, 2005).

“음악은 모든 어린이의 것이다.”라고 말한 헝가리의 코다이(Zoltán Kodály, 1882-1967)처럼 청각장애학생들도 모두가 음악적 리듬을 소유하고 있다. 음악이 없는데도 박자에 맞추어 춤을 추는 학생들을 보면 신비하고 놀랍다.

스코틀랜드 출신 청각장애아 애블린 글래니(1978~ 현재, 타악기 연주자)가 50여개의 타악기를 자유자재로 연주하면서 1년이면 120회가 넘는 연주회를 갖는 것을 보면 청각장애인으로서 그만큼 음악적 실력을 탁월히 선보인다는 것이 믿기기 어려울 만큼 신기하고 놀라운 사실이다(newsen.com. 2008).

선천성 장애로 태어났느냐, 후천성 장애냐에 따라서 장애의 발생시기로 인한 청각의 능력에 대한 활용은 많은 차이를 보이지만, 후천성 청각장애인의 대표적인 예술가 베토벤(1770. 12.16- 1827. 3. 26, 독일 본-오스트리아 빈)은 그의 나의 54세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말년에 남긴 불후한 명작 “합창 교향곡”은 청력이 다 상실된 채로 진동과 느낌과 오디에이션(Audiation)만을 사용하여 장엄하고 웅장하며 경이로운 교향곡 제9번을 작곡한 바 있다.

## 4. 선행연구고찰

### 1) 음악교육의 효과와 필요성

음악에 관한 연구와 음악을 통한 다양한 신체적, 심적 효과는 널리 알려진 바 있다. 음악의 필요성은 고대 시대에 이루어진 7자유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음악은 우리의 삶 속에 필요불가결한 예술 중의 하나이다. 많은 연구 중

에 음악과 치료를 접목한 연구 논문들도 그 효과에 대해 입증하는 바가 크다. 음악에 대한 효과와 필요성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음악의 정서적인 효과로는 김현숙(2007), 이지연 등이 있는데 김현숙(2007)은 ‘음악교육이 인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음악이 정서적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음악활동을 통해 사회성 향상에 도움이 되며 음악 교육을 통해 지적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음악활동이 자아실현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음악에 대한 가치 내면화 질문에 음악은 세상을 보다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들며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고 하였다. 이지연(2008)의 ‘음악교육이 인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의하면, 학생들은 음악교육이 스트레스 해소와 기분 전환, 생활의 활력소가 되며 도덕성과 사회성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김혜미(2006)는 ‘학습장애아의 음악치료를 위한 지도방안 연구’에서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리듬악기를 통한 즉흥연주는 모든 일에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던 학습장애아에게 자신감을 주었고, 연주활동을 통해 자신감과 집중력을 길러 줄 수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노래를 통한 음악치료는 학생에게 결여된 자기 표현력과 가사 창작을 통한 창의력을 길러줄 수 있었다고 하였다.

한편, 김종예(2010)는 ‘음악 감상 교육을 통한 주의력 결핍 · 과잉행동장애(ADHD) 청소년의 문제행동개선에 관한 연구’에서 ADHD가 의심되는 중학교 음악 감상이 ADHD로 의심되는 학생들에게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더 나아가 음악의 상호 이해의 효과를 다룬 연구로 민경훈(2009)은 ‘다문화 교육으로서 음악 교육의 필요성과 역할’에서 현대 사회는 지구촌이라는 이름을 얻을 정도로 국가와 국가 간의 거리가 좁혀졌고, 많은 나라들이 문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벽을 허물어가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음악 교육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 대하여 매우 효과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다문화적 음악 교육은 자신의 문화를

근본적으로 존중하면서 상호 간의 문화 교류를 통해 평화와 화합이라는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을 형성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개인의 정서 순화와 표현력과 집중력 향상, 상호 교류 등의 효과들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는데 음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김지수(2009)의 연구에서는 음악이 왜 필요한지 물었을 때 교사는 ‘심미적 체험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음악성을 계발하기 위해서, 정서 순화를 위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성이 아닌 감성의 생활을 위해서’라고 응답을 하였고, 학생들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재미있어서, 교양을 쌓기 위해서, 휴식이 필요해서, 상상력을 키워줘서, 마음이 건강해져서’라고 응답하였다.

## 2) 중학교 음악교육

중학교 음악교육에 관한 실태연구가 많지는 않으나 선행 연구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은지(2003)는 ‘중학교 음악 교육 실태조사 연구’에서 학생과 교사 모두 음악을 ‘좋아 한다’고 하였으며, 가창영역을 가장 많이 학습하였으나 학생들은 ‘감상’영역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의성 계발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국악교육이 서양음악에 비해 소홀히 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한편, 최혜정(2010)은 ‘중학교 음악교육이 인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음악을 통하여 감정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음악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음악의 생활화와 관련하여 지요아(2010)는 ‘서울지역 중학교 1학년 음악의 생활화 수업 실태 조사 연구’에서 음악 수업 내 학습영역 중 감상영역을 가장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의 음악의 생활화를 알아본 결과 감상과 악기 다루기가 대부분이었다.

### 3) 청각장애 학교 음악 교육에 관한 선행 연구

청각장애 학교에서의 음악 교육에 관한 논문은 다른 교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으나 많은 연구자가 다음과 같이 청각장애 음악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강정희(1985)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각장애아의 리듬 교육에 관한 실험 연구’에서 실험 후에 리듬감각의 정확도가 개선되었으며, 음악적 리듬과 언어리듬과의 연결을 통해 명확한 발어 향상을 목적으로 실험한 결과 긍정적인 향상이 보였다고 하였다.

청각장애학교 음악교육의 실태를 조사한 연구로 먼저, 권은영(2006)은 ‘청각장애학교 음악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에서 교사 면담과 학생대상 설문 조사 결과 교사들은 음악교사의 전문성을 문제점으로 언급하여 전공자에 비해 비전공자의 전문성이 많이 뒤떨어진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김순연(2006)은 ‘청각장애학교 음악교육 실태 및 활성화 방안’에서 청각장애학교에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음악 수업은 주당 1시간으로 음악과 지도 목표에 비추어 각 학교에서 배당한 음악 시간수는 전체적으로 부족하다고 하였다. 음악과 영역 중 아동이 가장 흥미있어 하는 영역은 수화 노래, 사물놀이 등 국악기, 리듬지도로 나타났고 수업 시간에 주로 부르는 노래는 쉬운 동요, 교과서 수록곡으로 조사되었다. 음악과 성취 수준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학생은 장애자체의 한계를 꼽았고 교사는 전문성 부족을 언급하였다. 음악교육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학습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았으며, 가장 필요한 자료로는 음악적으로 청각장애를 고려해서 고안된 교재·교구라고 하였다.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조은(2007)은 청각장애 학생은 음악의 진동(vibration)을 통해 리듬과 박자의 규칙을 알고 잔존청력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청각장애학교의 음악 교육에 관하여 국내에서 조사연구와 실험연구, 질적 연구 등이 이루어졌으나 효과적인 음악 교수·학습과 음악의 생활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장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학생들의 음악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들이 제한적으로 수행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 조사한 학생들의 음악에 대한 인지 정도, 선호도, 생활화 등은 효과적인 음악 교과 운영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전국 청각장애학교 21개교의 중학교 음악을 전담하고 있는 음악 교사들과 각 학교의 전체 중학교 학생들 중에서 설문지를 이해하고 스스로 설문지를 작성할 수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조사연구이다. 조사를 위하여 청각장애 중학교 21곳에 교사용 22부와 학생용 154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교사용 20부(90.9%)와 학생용 144부(93.5%)를 회수하였고 이중 무응답 1부를 제외한 143부를 분석하여 자료로 사용하였다.

교사에 대한 기초사항은 <표 Ⅲ-1>에 제시하였다.

<표 Ⅲ-1> 교사의 일반적인 특성

(N=20)

구 분	빈도(n)	백분율(%)
성별	남	3
	여	17
연령	30세 미만	1
	30세~39세	11
	40세~49세	7
	50세 이상	1
소재지	대도시	10
	중·소도시	10
교육경력	3년 미만	10
	3년 이상 10년 미만	6
	10년 이상	4
전공여부	음악교육	2
	특수교육	12
	특수교육&음악교육	6
수화능력	초급	7
	중급	8
	고급	5

학생에 대한 기초 사항은 <표 III-2>과 같이, 남학생이 79명(55.2%), 여학생이 64명(44.8%)로 나타났고, 부모님의 청각장애 유무에서 모두 건청인인 경우가 105명(73.4%)으로 나타났다. 음악교육경험은 78명(54.5)%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5명(45.5%)로 조사되었다. 인공와우 수술은 83명(53%)가 수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 학생의 일반적인 특성

(N=143)

구 분		빈도(n)	백분율(%)
성별	남	79	55.2
	여	64	44.8
학년	1학년	65	45.5
	2학년	37	25.9
	3학년	41	28.7
부모님의 청각장애 유무	모두 농아인	21	14.7
	한 부모 농아인	17	11.9
	모두 건청인	105	73.4
음악교육경험	있음	65	45.5
	없음	78	54.5
청력수준	경도	3	2.1
	중도	7	4.9
	중등도	5	3.5
	고도	18	12.6
	농	26	18.2
	무응답	84	58.7
인공 와우 수술	수술함	60	42.0
	수술하지 않음	83	58.0
보청기 착용여부	항상 착용함	51	35.7
	필요할 때만 착용함	39	27.3
	착용하지 않음	53	37.1

##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청각장애 특수학교 음악교육의 운영실태와 학생들의 음악 활동에 따른 요구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문항 작성은 청각장애학교의 음악교육 및 특수학교의 음악교육에 관한 선행연구 권은영(2006), 김순영(2006), 이조은(2007), 김지영(2000)의 문헌을 참고로 1차 작성 한 후, 음악전공교사1명과 청각장애학교 특수교사 3명에게 자문을 구한 후 수정·보완하였고, 최종적으로 청각장애전문가와 협의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교사용은 교사와 학교 음악실 환경에 관한 기초 사항, 음악과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음악과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학생용은 학생의 기초사항, 음악소리의 인지 및 식별여부에 관한 사항, 음악교과의 선호도 및 인지도에 관한 사항, 음악의 생활화에 관한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사용 설문지의 영역과 구성은 <표Ⅲ-3>과 같다.

<표Ⅲ-3> 교사용 설문지의 영역과 구성

설문영역	문항 수	문항번호	
1. 일반적인 사항	기초조사	6	I. 1~6
2. 음악실 환경	학교 음악실 환경조사	5	Ⅱ. 1~5
3. 교육과정	종류	1	Ⅲ. 1
	운영시간	1	Ⅲ. 2
	적합성여부	2	Ⅲ. 3~4
	지도에 따른 중요도	1	Ⅲ. 5
	음악교육의 필요성	3	Ⅲ. 6~8
	음악시간 외 활동여부	1	Ⅲ. 9
4. 교수·학습 방법	주교재	1	Ⅳ. 1
	의사소통방법	1	Ⅳ. 2
	각 영역의 지도방법	5	Ⅳ. 3~7
	지도방법에 따른 교사의 의견	6	Ⅳ. 8~11-1
	음악과제(생활화)	1	Ⅳ. 12
	개선점 및 필요사항	3	Ⅳ. 13~15
	음악과 연수에 관한 사항	1	Ⅳ. 16

학생용 설문지의 영역과 구성은 <표Ⅲ-4>과 같이 일반적인 사항, 음악 소리 인지, 음악교과의 선호도 및 인지도 그리고 음악의 생활화 영역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있다.

<표Ⅲ-4> 학생용 설문지의 영역과 구성

설문영역		문항 수	문항번호
1. 일반적인 사항	기초조사	7	I. 1~7
2. 음악 소리인지	음악소리의 인지 및 식별여부	5	Ⅱ. 1~5
3. 음악교과의 선호도 및 인지도	흥미도	3	Ⅲ. 1~2
	수업활동의 이해여부	4	Ⅲ. 2~5
	선호하는 악기	1	Ⅲ. 6
	음악의 인지	1	Ⅲ. 7
	가장 쉬운 음악수업방법	1	Ⅲ. 8
	가장 어려운 음악수업방법	2	Ⅲ. 9~9-1
4. 음악의 생활화	평상시의 음악선호도	3	Ⅳ. 1~3
	음악발표경험	4	Ⅳ. 4~5-1
	노래방가기	1	Ⅳ. 6
	가족환경	1	Ⅳ. 7
	음악 전공 선호도	1	Ⅳ. 8

###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청각장애 중학교 음악교육의 실태와 학생들의 음악활동에 관한 조사연구이다. 문헌연구를 통해 일반학교 음악교육과 청각장애 학생음악교육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1차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그 후 개발된 설문지의 내용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음악전공 교사1명과 청각장애 특수학교 교사 3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보완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논문 지도 교수와 협의하여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완성된 설문지를 배부하기 전, 전국의 청각장애학교에서 음악을 담당하고

있는 중학교 선생님들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설문지 응답에 관한 허락을 구하였다. 전화연락은 3회에 걸쳐 하였으며 연락이 닿지 않은 학교는 메모를 남겨 다시 연락하는 방법을 하였다.

#### 4. 자료 처리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을 활용하여 처리하였다.

조사도구의 전 문항에 대한 응답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알아보았다. 복수 응답에 관해서는 케이스백분율을 산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청각장애 중학교 음악교과의 실태

#### 1) 학교 음악실 환경조사

##### (1) 음악실, 방음실, 음악실 외 공간

음악실 환경조사 결과, 음악실이 있는 학교는 18개교(90%)였으며, 음악실이 없는 학교는 2곳(10%)으로 조사되었다. 방음시설이 있는 학교는 3개교(15%)였으며, 방음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학교는 17학교로 85%였다. 음악실 외 음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12곳(60%)이 그렇다고 하였고, 8개교(40%)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음악실 환경에 관한 조사 결과는 <표 IV-1>과 같다.

<표 IV-1> 음악실 환경조사

(N=20)

기자재명		빈도(n)	백분율(%)
음악실	있다	18	90.0
	없다	2	10.0
방음실	있다	3	15.0
	없다	17	85.0
음악실 외 공간	있다	12	60.0
	없다	8	40.0

(2) 악기 보유 현황

각 학교의 악기 보유 현황을 살펴본 결과, 리듬악기가 21.3%로 가장 많았고, 피아노가 19.1%, 신디사이저가 13.5% 등으로 조사되었다. 첼로와 가야금, 해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기 보유 현황에 따른 조사 결과는 <표 IV-2>과 같다.

<표 IV-2> 악기 보유 현황

(N=20)

악기명	빈도(n)	백분율(%)	케이스백분율(%)
피아노	17	19.1	85.0
리듬악기	19	21.3	95.0
트럼펫	1	1.1	5.0
트럼본	1	1.1	5.0
바이올린	1	1.1	5.0
첼로	·	·	0
가야금	·	·	0
해금	·	·	0
드럼	10	11.2	50.0
신디사이저	12	13.5	60.0
오카리나	6	6.7	30.0
하모니카	2	2.2	10.0
단소	10	11.2	50.0
기타	10	11.2	50.0

(3) 기자재 보유 현황

음악실에 비치되어 있는 기자재의 보유 현황 결과는 <표 IV-3>와 같이 나타났다. 컴퓨터를 응답한 수가 17명(23.9%), 프로젝션 TV가 15명( 21.1%), 신디사이저와 오디오가 각각 12명으로 16.9%로 조사되었다.



<표 IV-3> 기자재 보유 현황

(N=20)

기자재명	빈도(n)	백분율(%)	케이스백분율(%)
프로젝션 TV	15	21.1	78.9
컴퓨터	17	23.9	89.5
오디오	12	16.9	63.2
CD플레이어	9	12.7	47.4
신디사이저	12	16.9	63.2
기타	6	8.5	31.6

## 2) 교육과정 운영 실태

### (1) 교육과정 사용 종류

교육과정 사용 유형을 살펴본 결과,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사용하는 교사가 50%로 나타났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기본 교육과정을 함께 사용하는 교사는 35%, 기본 교육과정을 사용하는 교사는 5%, 국민공통 교육과정을 수정하여 사용하는 교사는 10%로 나타났다. 교육과정 사용 종류에 따른 조사 결과는 <표 IV-4>과 같다.

<표 IV-4> 교육과정 사용 현황

(N=20)

내용	빈도(n)	백분율(%)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10	50.0
국민공통+기본교육	7	35.0
기본교육과정	1	5.0
국민공통 과정 수정	2	10.0

(2) 수업횟수 및 수업시간

청각장애 중학교의 음악 수업횟수와 시간당 수업 시간을 조사해 본 결과, 음악 수업이 일주일에 한 번인 학교는 55%였고, 두 번 수업이 있는 학교는 45%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은 1시간 수업이 40분인 학교는 45%, 1시간 수업을 45분으로 운영하는 학교는 55%로 나타났다. 수업횟수 및 수업시간에 따른 조사 결과는 <표 IV-5>와 같다.

<표 IV-5> 수업횟수 및 단위수업시간

(N=20)

		빈도(n)	백분율(%)
수업횟수	주1회	11	55
	주2회	9	45
단위수업시간	40분	9	45
	45분	11	55

(3) 수업시수의 적절성과 교과서의 적합성

수업 시수의 적절성과 교과서의 적합성에 관한 조사 결과는 <표 IV-6>와 같다.

<표 IV-6> 수업시수의 적합성과 교과서의 적합성

(N=20)

		빈도(n)	백분율(%)
수업시수	적당함	17	85
	적당하지 않음	3	15
	잘 모르겠음	0	0
교과서	적합함	2	10
	부분적으로 적합함	8	40
	적합하지 않음	10	50

<표 IV-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사용 중인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수업 시수의 적절성을 물었을 때, 17명(85%)은 적당하다고 하였고, 3명(15%)은 적당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교과서의 적합성에 관해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10명(50%)으로 가장 많았고, 부분적으로 적합하다는 응답이 8명(40%), 적합하다는 의견이 2명(10%)으로 조사되었다.

(4) 음악활동 중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역

음악활동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활동 영역에 대한 질문에 대한 결과는 아래<표 IV-7>와 같이 나타났다. 악기 연주하기가 13명으로 65%로 조사되었고, 노래 부르기가 6명(30%) 그리고 감상하기가 1명(5%)으로 나타났으며 음악 만들기에는 응답자가 없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음악활동에는 악기 연주하기가 15명(75%), 노래 부르기가 4명(20%) 그리고 감상하기가 1명(5%)으로 조사되었으며, 음악 만들기는 응답자가 없었다.

<표 IV-7> 음악활동 중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역

(N=20)

	내용	빈도(n)	백분율(%)
가장 중요함	노래 부르기	6	30.0
	악기 연주하기	13	65.0
	음악 만들기	0	0.0
	감상하기	1	5.0
가장 필요함	노래 부르기	4	20.0
	악기 연주하기	15	75.0
	음악 만들기	0	0.0
	감상하기	1	5.0

(5) 음악 교육의 필요성과 이유

음악 교육의 필요성과 그 이유에 대한 질문에 관한 결과는 <표 IV-8>와 같이 제시하였다. 음악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16명(80%)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수는 4명(20%)로 나타났다. 음악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이유로는 삶의 질 향상 때문이라고 응답한 수가 8명(40%), 잠재능력 개발 때문이라고 응답한 수는 6명(30%), 청능 향상을 위해서라고 응답한 수가 5명(25%) 순으로 나타났다. 음악 교육의 필요성과 이유에 관한 결과는 아래 <표 IV-8>와 같다.

<표 IV-8> 음악 교육의 필요성과 이유

(N=20)

		빈도(n)	백분율(%)
필요성	필요함	16	80
	보통	4	20
필요한 이유	인성발달	1	5
	잠재능력개발	6	30
	삶의 질 향상	8	40
	청능 향상을 위해	5	25
	기타	0	0

3) 교수·학습 방법

(1) 사용하는 자료

수업 중 사용하는 자료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IV-9>와 같다. 음악 수업 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수업하는지 살펴본 결과,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는 수가 8명(40%), 교과서나 인터넷 활용이 4명(20%), 쉬운 악보사용과 다른 학년의 교과서를 학습 자료로 사용한다는 응답자가 각각 2명(10%)으로 조사되었

다.

<표 IV-9> 사용하는 자료

(N=20)

	빈도(n)	백분율(%)
교과서	4	20
쉬운 약보	2	10
다른 학년 교과서	2	10
직접 제작하여 사용	8	40
인터넷 활용	4	20

(2) 의사소통방법

수업 중 의사소통 방법에 관한 조사 결과, 수화를 사용한다는 응답자가 1명(5%)이었고, 응답자 대부분은 수화와 구화를 병행하여 사용한다는 응답에 19명(95%)이 응답하였다. 구화 사용자는 전혀 없었다. 의사소통방법에 대한 결과는 <표 IV-10>와 같다.

<표 IV-10> 의사소통방법

(N=20)

	빈도(n)	백분율(%)
수화	1	5.0
수화 + 구화	19	95.0
구화	0	0.0

(3) 노래 부르기 지도 방법

음악 활동 중 ‘노래 부르기’를 지도하는 데 가장 주로 사용하는 방법을 1, 2, 3위순으로 조사한 결과는 <표 IV-11>와 같이 1순위로는 수화로 노래하  
기가 8명(40%), 구화로 지도를 한다는 응답자가 5명(25%)이였고, 2순위는 구  
화로 지도한다가 11명(55%), 수화로 지도한다는 응답자가 6명(30%)으로 조사  
되었다. 3순위로는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지도한다는 응답이 9명(45%)  
으로 조사되었고 구화를 사용한다는 응답자가 4명(20%)으로 나타났다.

<표 IV-11> 노래 부르기 지도 방법

(N=20)

		빈도(n)	백분율(%)
1순위	수화	8	40.0
	구화	5	25.0
	동영상	4	20.0
	피아노 반주	1	5.0
	거의 지도하지 않음	1	5.0
	기타	1	5.0
2순위	구화	11	55.0
	수화	6	30.0
	동영상	3	15.0
	피아노 반주	.	.
	거의 지도하지 않음	.	.
	기타	.	.
3순위	피아노 반주	9	45.0
	구화	4	20.0
	동영상	2	10.0
	수화	2	10.0
	거의 지도하지 않음	2	10.0
	기타	1	5.0

(4) 악기 연주하기 지도 방법

음악 활동 영역 중 악기 연주하기를 지도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조사는 우선순위로 질문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IV-12>와 같이 나타났다. 악기 연주하기 지도 시 우선순위 조사 결과 1순위는 시범보이기로 11명(55%)이 조사되었으며, 개별지도는 6명(30%)이 응답하였다. 2순위에서 악기지도 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개별지도가 10명(50%), 시범보이기가 6명(30%)으로 나타났으며, 3순위는 짝끼리 연습하는 방법으로 12명(60%)이 응답하였고, 개별지도 방법이 5명(25%) 응답하였다.

<표 IV-12> 악기 연주하기 지도 방법

(N=20)

		빈도(n)	백분율(%)
1순위	시범보이기	<b>11</b>	<b>55.0</b>
	개별지도	6	30.0
	짝끼리 연습	1	5.0
	동영상	1	5.0
	거의 지도하지 않음	1	5.0
	기타	.	.
2순위	개별지도	<b>10</b>	<b>50.0</b>
	시범보이기	6	30.0
	짝끼리 연습	2	10.0
	동영상	2	10.0
	거의 지도하지 않음	.	.
	기타	.	.
3순위	짝끼리 연습	<b>12</b>	<b>60.0</b>
	개별지도	5	25.0
	동영상	2	10.0
	기타	1	5.0
	거의 지도하지 않음	.	.
	시범보이기	.	.

(5) 음악 만들기 지도 방법

음악 만들기에 관한 지도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IV-13>와 같이 나타났다.

<표 IV-13> 음악 만들기 지도 방법

(N=20)

		빈도(n)	백분율(%)
1순위	리듬 만들기 지도	8	40.0
	가사 만들기 지도	6	30.0
	거의 지도하지 않음	6	30.0
	작곡지도	.	.
	뮤지컬 창작	.	.
	판소리 창작	.	.
2순위	리듬 만들기 지도	13	65
	가사 만들기 지도	3	15
	작곡지도	2	10
	거의 지도하지 않음	2	10
	뮤지컬 창작	.	.
	판소리 창작	.	.
3순위	작곡지도	12	60.0
	가사 만들기 지도	6	30.0
	뮤지컬 창작	2	10.0
	리듬 만들기 지도	.	.
	판소리 창작	.	.
	거의 지도하지 않음	.	.

첫 번째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한 방법은 리듬 만들기 지도로 8명(40%)이 응답하였고, 가사 만들기과 거의 지도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각각 6명(30%)의 응답을 하였다. 두 번째 응답으로는 리듬 만들기가 13명(65%), 세 번째는 작곡지도로 12명(60%)이 응답하였다.



(6) 감상하기 지도 방법

감상하기를 지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에서 1순위는 동영상 16명(80%)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자막 비디오는 2명(10%)으로 조사되었다. 2순위는 자막 비디오가 13명(65%)이 응답하였고, 3순위에서는 CD플레이어를 가지고 지도한다는 응답자가 8명(40%)으로 조사되었다. 감상하기 지도 방법에 대한 결과는 <표 IV-14>과 같다.

<표 IV-14> 감상하기 지도 방법

(N=20)

	빈도(n)	백분율(%)	
1순위	동영상	16	80.0
	자막 비디오	2	10.0
	CD플레이어	1	5.0
	거의 지도하지 않음	1	5.0
	공연장 방문	.	.
	외부 전문 강사 초빙	.	.
	기타	.	.
2순위	자막 비디오	13	65.0
	동영상	3	15.0
	CD플레이어	3	15.0
	공연장 방문	1	5.0
	외부 전문 강사 초빙	.	.
	거의 지도하지 않음	.	.
	기타	.	.
3순위	CD플레이어	8	40.0
	공연장 방문	7	35.0
	자막 비디오	2	10.0
	외부 전문 강사 초빙	1	5.0
	거의 지도하지 않음	1	5.0
	기타	1	5.0
	동영상	0	0.0

(7) 다양한 학습매체의 활용

다양한 학습 매체의 활용에 관한 조사 결과, 노래 부르기를 지도할 때 시창과 청음을 이용하여 지도한다는 응답자가 11명(55%)으로 가장 많았고, 악기 연주를 지도할 때 즉흥연주를 한다는 응답자가 8명(40%), 음악 만들기를 할 때 즉흥연주를 활용한다와 리듬 읽기를 한다는 응답자가 각각 3명(15%)로 조사되었다. 감상하기 영역에는 응답자가 없었으며, 적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각각의 학습 내용에 분포되어 있었다. 다양한 학습 매체의 활용에 대한 결과표는 <표 IV-15> 와 같이 나타났다.

<표 IV-15> 다양한 학습매체의 활용

(N=20)

내용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음악 만들기	감상하기	적용하지 않음
	n (%)	n (%)	n (%)	n (%)	n (%)
유리드박스	<b>3(15)</b>	2(10)	-	-	15(75)
시창·처음	11(55)	1(5)	-	-	<b>8(40)</b>
즉흥연주	-	<b>8(40)</b>	<b>3(15)</b>	-	9(45)
리듬읽기	5(25)	1(5)	3(15)	-	11(55)
손기호	3(15)	3(15)	1(5)	-	13(65)
오스티나토	1(5)	-	-	-	19(95)
여러 학습매체	3(15)	5(25)	1(5)	-	11(55)

(8) 가장 잘 지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

음악 활동 중 가장 잘 지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에 대한 조사 결과 악기 연주가 12명으로 60%로가 나왔으며, 노래 부르기가 6명(30%), 감상하기와 기타가 각각 1명(5%)으로 조사되었다.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표 IV-16> 와 같다.

<표 IV-16> 가장 잘 지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

(N=20)

	빈도(n)	백분율(%)
노래 부르기	6	30.0
악기연주	12	60.0
음악 만들기	.	.
감상하기	1	5.0
기타	1	5.0

(9) 가장 지도하기 즐거운 영역

가장 지도하기 즐거운 영역으로는 악기 연주가 11명(55%), 노래 부르기가 8명(40%), 감상하기가 1명(5%)으로 조사되었다. 자세한 결과표는 <표 IV-17>와 같이 나타났다.

<표 IV-17> 가장 지도하기 즐거운 영역

(N=20)

내용	빈도(n)	백분율(%)
노래 부르기	8	40.0
음악 만들기	.	.
악기연주	11	55.0
감상하기	1	5.0
내용(이유)	빈도(n)	백분율(%)
학생들의 장애 때문	4	20.0
교사의 능력과 의지가 있음	2	10.0
프로그램의 다양성	.	.
가르치는 방법의 노하우가 생겨서	3	15.0
학생들의 흥미가 많음	10	50.0
기타	1	5.0

지도하기 즐거운 이유로는 <표 IV-17>와 같이 학생들의 흥미가 많음이 10

명(50%), 학생들의 장애 때문이라고 응답한 수가 4명(20%), 가르치는 방법의 노하우가 생겨서라고 응답한 수가 3명(15%)으로 나타났다.

(10) 학생들의 음악 생활화를 위한 과제물

학생들의 음악 생활화를 위해 내주는 과제물에 대해서는 악기 연습해오기가 10명(50%)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가 6명(30%), 노래 외워오기가 4명(20%)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음악 생활화를 위한 과제물에 관한 내용은 <표 IV-18>와 같다.

<표 IV-18> 학생들의 음악 생활화를 위한 과제물

(N=20)

	빈도(n)	백분율(%)
악기 연습해오기	10	50.0
노래 외워오기	4	20.0
음악회 다녀온 후 감상문쓰기	.	.
좋아하는 음악목록 작성해오기	.	.
기타	6	30.0

## 2. 청각장애 중학교 음악수업의 문제점과 개선점

### 1) 문제점

#### (1) 가장 지도하기 어려운 영역

음악 수업 중 가장 지도하기 어려운 영역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IV-19>

와 같이 조사되었다. 감상하기가 12명(60%)으로 나타났고, 노래 부르기가 5명(25%) 그리고 음악 만들기가 3명(15%) 순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 학생들의 장애 때문이라는 응답이 13명(65%)으로 가장 많이 나왔고, 가르치는 방법의 노하우를 몰라서가 4명(20%), 프로그램의 부족(2명(10%) 등의 결과가 조사되었다.

<표 IV-19> 가장 지도하기 어려운 영역

(N=20)

내용	빈도(n)	백분율(%)
노래 부르기	5	25
음악 만들기	3	15
악기연주	.	.
감상하기	12	60
<b>이유</b>		
학생들의 장애 때문	13	65
교사의 능력과 의지부족	.	.
프로그램의 부족	2	10
가르치는 방법의 노하우를 몰라서	4	20
학생들의 흥미들의 관심과 흥미가 부족	.	.
기타	1	5

(2) 가장 지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영역

가장 지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IV-20>와 같이 나타났는데, 감상하기가 15명으로 75%였으며 기타가 4명(20%), 노래

부르기가 1명(5%)으로 조사되었다.

<표 IV-20> 가장 지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영역

(N=20)

	빈도(n)	백분율(%)
노래 부르기	1	5.0
음악 만들기	.	.
악기연주	.	.
감상하기	15	75
기타	4	20

### (3) 학생들 지도 시 가장 큰 어려움

학생들을 지도 할 때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에 관한 영역에서는 교사의 전문성 부족이 6명(30%)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학생들의 동기 유발의 어려움이 각각 4명(20%), 학생들의 인지능력부족과 기타이유로 3명(15%) 순으로 응답하였다. 응답에 관한 결과표는 <표 IV-21>와 같다.

<표 IV-21> 학생들 지도 시 가장 큰 어려움

(N=20)

내용	빈도(n)	백분율(%)
의사소통의 어려움	4	20.0
학생들의 인지능력 부족	3	15.0
교사의 전문성 부족	6	30.0
학생들의 특성 파악이 어려움	.	.
학생들의 동기유발이 어려움	4	20.0
기타	3	15.0

## 2) 개선점

### (1) 문제 해결 방법

문제 해결 방법에 관한 조사 결과는 <표 IV-22>와 같이 나타났다. 동료 교사와 대화 및 상담으로 해결한다가 11명(55%)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했다. 기타의견으로 5명(25%)이 응답하였고,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신장한다는 응답자가 4명(20%)으로 조사되었다.

<표 IV-22> 문제 해결 방법

(N=20)

내용	빈도(n)	백분율(%)
연수를 통해 전문성 신장	4	20.0
동료 교사와 대화 및 상담	11	55.0
동료장학이나 개인장학 실시	·	·
거의 해결하지 않음	·	·
기타	5	25.0

### (2) 교수·학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교수·학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한 결과는 <표 IV-23>와 같다. 교수·학습 방법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교사의 다양한 연수가 8명(40%), 음악 교과와 관련된 시각자료 활용이 6명(30%), 실기 위주의 교수가 3명(15%), 다양한 학습 자료 준비가 2명(10%), 교사의 의사소통 능력이 1명(5%)으로 조사되었다.

<표 IV-23> 교수·학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N=20)

내용	빈도(n)	백분율(%)
교사의 다양한 연수	8	40.0
음악교과와 관련된 시각자료 활용	6	30.0
다양한 학습자료 준비	2	10.0
실기 위주의 교수	3	15.0
교사의 의사소통 능력	1	5.0

(3)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연수 내용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연수 내용에 관한 조사 결과, 청각장애학생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이라고 응답한 수가 8명(40%)으로 가장 많았고, 악기 및 실기에 관한 연수가 4명(20%), 교수·학습 자료 개발과 기타의견이 3명(15%), 음악과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연수가 2명(10%)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연수 내용에 관한 결과는 <표 IV-24>와 같이 나타났다.

<표 IV-24>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연수 내용

(N=20)

내용	빈도(n)	백분율(%)
청각장애학생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8	40.0
음악과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연수	2	10.0
악기 및 실기	4	20.0
교수·학습 자료 개발	3	15.0
기타	3	15.0



#### (4) 기타

음악교사들에게 기타 자우 기술형식으로 의견을 피력하도록 한 결과 4가지의 의견이 나왔다. 부록에 구체적인 내용을 첨부하였고, 간추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순수 청각장애학생들보다 중복 장애학생들이 늘어감에 따라 각기 개별지도를 요구하고, 학생구성의 어려움이 있다.

둘째, 가창학습이 구화사용에 도움이 되어서 음악실에 노래방기기가 있다.

셋째, 장애에 상관없이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교과역량은 충분하다고 본다. 그러나 학년을 구성하는 학생들의 수준이 각각 다르고 흥미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수업구성이 어렵다. 교사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학생들에 대한 사랑이 좋은 수업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한다.

넷째, 교사의 능력이 우선시 되어야만 학생들의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 3. 청각장애 중학교 학생들의 음악활동 실태

#### 1) 음악 소리의 인지 및 식별 여부

##### (1) 소리의 인식 정도

소리의 들림 정도를 조사한 결과, 72명(50.3%)이 소리가 잘 들림에 응답하였고, 소리가 약하게 들린다고 응답한 수는 46명(32.2%),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응답한 수는 25명(17.5%)로 조사되었다. 학생들의 소리의 들림 정도에 관한 결과는 <표 IV-25>와 같이 나타났다.

<표 IV-25> 소리의 들림 정도

(N=143)

내용	빈도(n)	백분율(%)
소리가 잘 들림	72	50.3
소리가 약하게 들림	46	32.2
소리가 들리지 않음	25	17.5

(2) 악기 소리의 구분

악기 소리의 구분에 관한 조사 결과는 <표 IV-26>와 같이 구분할 수 있음이 34명(23.8%), 조금 구분할 수 있음이 73명(51.0%)이고, 구분할 수 없다고 응답한 수는 36명(25.2%)로 조사되었다.

<표 IV-26> 악기 소리의 구분

(N=143)

내용	빈도(n)	백분율(%)
구분할 수 있음	34	23.8
조금 구분할 수 있음	73	51.0
구분할 수 없음	36	25.2

(3) 수업 중 소리를 듣는데 방해가 되는 것

수업 중 소리를 듣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들에 관한 조사 결과, 기타가 57명(39.9%), 보청기 착용이 불편하다는 응답자가 35명(24.5%), 머리가 아프다고 응답한 수가 30명(21.0%), 음악을 듣거나 소리를 듣는 것이 귀찮다고 응답한 수가 21명(14.7%)으로 조사되었다. 기타의견에서는 시끄럽다, 소리가 너무 크다 등의 서술의견이 있었고 방해되는 것이 없다는 의견도 많았다. 수업 중

소리를 듣는데 방해가 되는 것에 관한 결과표는 <표 IV-27>와 같다.

<표 IV-27> 수업 중 소리를 듣는데 방해가 되는 것

(N=143)

내용	빈도(n)	백분율(%)
보청기 착용이 불편함	35	24.5
머리가 아픔	30	21.0
듣는 것이 귀찮음	21	14.7
기타	57	39.9

(4) 일상생활 중 들리는 소리

일상생활 중 들리는 소리 중 잘 듣는 소리의 순으로 조사한 결과, 자동차 소리가 38명(26.6%)으로 가장 많은 응답수가 있었고, 기차소리가 30명(21%),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친구의 소리가 19명(13.3%), 기타가 18명(12.6%)으로 조사되었다. 일상생활 중 들리는 소리에 관한 결과표는 <표 IV-28>와 같다.

<표 IV-28> 일상생활 중 들리는 소리

(N=143)

내용	빈도(n)	백분율(%)
자동차 소리	38	26.6
기차 소리	30	21.0
내 이름을 부르는 친구소리	19	13.3
선생님 수업소리	13	9.1
친구들의 떠드는소리	13	9.1
가족들과 대화소리	12	8.4
기타	18	12.6

(5) 가장 잘 들리는 악기 소리

가장 잘 들리는 악기 소리에 관한 조사 결과, 북이 26%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응답하였고, 장구와 썩과리가 각각 22.3%, 징이 52%가 복수 응답하였다. 가장 잘 들리는 악기 소리에 대한 결과는 <표 IV-29>와 같이 나타났다.

<표 IV-29> 가장 잘 들리는 악기 소리

(N=143)

내용	빈도(n)	백분율(%)	케이스백분율(%)
징	52	19.3	36.4
북	70	26.0	49.0
장구	60	22.3	42.0
썩과리	60	22.3	42.0
기타	27	10.0	18.9
합계	269	100.0	188.1

2) 음악 교과의 선호도 및 인지도

(1) 음악활동의 흥미

음악 수업에 대한 흥미를 묻은 결과, 재미있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64명(44.8%), 보통이다가 43명(30.1), 재미없다고 응답한 수가 19명(13.3%),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가 17명(11.9%)으로 조사되었다.

음악 수업이 재미있다고 응답한 64명에게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음악이 좋아서 라고 응답한 수는 15명(22.4%), 선생님의 수업 방법이 좋아서 라고 응답한 수는 16명(23.9%), 음악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수가 14명(20.9%)등으로 나타났다. 음악활동의 흥미와 그에 따른 이유는 <표 IV-30>와 같이 조사되었다.

<표 IV-30> 음악활동의 흥미

(N=143)

내용	빈도(n)	백분율(%)
재미있다	64	44.8
보통	43	30.1
재미없다	19	13.3
잘 모르겠다	17	11.9
재미있는 이유(n=64)		
음악이 좋아서	15	22.4
선생님의 수업 방법이 좋아서	16	23.9
음악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14	20.9
악기 다루는 것이 좋아서	9	13.5
노래하는 것이 좋아서	12	17.9
기타	1	1.4
재미없는 이유(n=19)		
음악이 어려워서	6	31.6
선생님의 수업방법이 재미없어서	3	15.8
노래하는 것이 싫어서	1	5.3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	5	26.3
원하는 것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4	21.0

(2) 음악의 인지 정도

음악에 관해 자신의 인지도를 물었을 때 64명(44.8%)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79명(55.2%)이 잘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음악의 인지 정도에 관한 결과는 <표 IV-31>와 같이 조사되었다.

<표 IV-31> 음악의 인지 정도

(N=143)

내용	빈도(n)	백분율(%)
나는 음악에 대해 잘 알고 있다.	64	44.8
나는 음악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79	55.2

(3)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

음악 활동 중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에 관해서는 노래 부르기가 62명(43.4%), 악기 연주하기가 44명(30.8%), 감상하기가 17명(11.9%) 순으로 조사되었다. 음악활동 중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표 IV-32> 와 같이 나타났다.

<표 IV-32>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

(N=143)

내용	빈도(n)	백분율(%)
노래 부르기	62	43.4
악기연주하기	44	30.8
음악 만들기	9	6.3
감상하기	17	11.9
기타	11	7.7

(4) 가장 즐거운 음악 활동

음악 활동 중 가장 즐거운 활동에 관한 조사 결과는 <표 IV-33>와 같이 나타났는데, 노래 부르기가 가장 즐겁다고 응답한 수가 48명(33.6%), 악기 연주하기가 43명(30.1%), 감상하기가 26명(18.2%)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IV-33> 가장 즐거운 음악 활동

(N=143)

내용	빈도(n)	백분율(%)
노래 부르기	48	33.6
악기 연주하기	43	30.1
음악 만들기	12	8.4
감상하기	26	18.2
기타	14	9.8

(5) 가장 어려운 음악 활동

음악 활동 중 가장 어려운 활동으로는 음악 만들기가 60명(42%), 노래 부르기가 32명(22.4%), 악기 연주하기가 20명(14%)으로 응답하였다. 가장 어려운 음악활동에 관한 결과는 <표 IV-34>와 같다.

<표 IV-34> 가장 어려운 음악 활동

(N=143)

내용	빈도(n)	백분율(%)
노래 부르기	32	22.4
악기 연주하기	20	14.0
음악 만들기	60	42.0
감상하기	14	9.8
기타	17	11.9

(6) 가장 배우고 싶은 악기

가장 배우고 싶은 악기로는 피아노가 57명(19.7%)으로 가장 많았고, 드럼이 48명(16.6%), 바이올린이 35명(8.6%) 순으로 조사되었다. 학생들이 가장 배우고 싶은 악기에 관한 결과는 <표 IV-35>와 같이 나타났다.

<표 IV-35> 가장 배우고 싶은 악기

(N=143)

내용	빈도(n)	백분율(%)	케이스백분율(%)
피아노	57	19.7	41.0
리듬악기	25	8.6	18.0
트럼펫	5	1.7	3.6
트럼본	7	2.4	5.0
바이올린	35	12.1	25.2
첼로	18	6.2	12.9
가야금	16	5.5	11.5
해금	6	2.1	4.3
드럼	48	16.6	34.5
신디사이저	5	1.7	3.6
오카리나	16	5.5	12.5
하모니카	18	6.2	11.9
기타	34	11.7	24.5
합계	290	100.0	208.6

(7) 가장 이해하기 쉬운 음악 수업 방법

음악활동 중 가장 이해하기 쉬운 수업 방법에 관한 조사 결과는 <표 IV-36>와 같이 나타났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음악 수업방법에는 선생님의 설명 방식이 67명(46.9%)으로 가장 많았고, 직접해보는 방법이 26명(18.2%), 인터넷을 활용한 수업이 2명(15.4%)순으로 나타났다.



<표 IV-36> 가장 이해하기 쉬운 음악 수업 방법

(N=143)

내용	빈도(n)	백분율(%)
선생님의 설명	67	46.9
직접 해보는 방법	26	18.2
프로젝션 tv통해 보는 수업	13	9.1
친구들과 토론	7	4.9
인터넷 활용 수업	22	15.4
기타	8	5.6

(8) 가장 이해하기 힘든 음악 수업 방법

가장 이해하기 힘든 음악 수업 방법에 관한 결과는 <표 IV-37>와 같이 나타났다.

<표 IV-37> 가장 이해하기 힘든 음악 수업 방법

(N=143)

내용	빈도(n)	백분율(%)
선생님의 설명	63	44.1
직접 해보는 방법	20	14.0
프로젝션 tv통해 보는 수업	7	4.9
친구들과 토론	25	17.5
인터넷 사용하는 수업	13	9.1
기타	15	10.5
선생님의 설명이 어려운 이유(n=63)		
수화부족	13	9.1
설명이 너무 빠르다	13	9.1
단어 뜻을 모르겠다	20	14.0
설명이 부족하다	7	4.9
설명이 너무 짧다	2	1.4
기타	5	3.5

가장 이해하기 힘든 음악 수업 방법으로는 선생님의 설명이 63명(44.1%)으로 나타났고, 친구들과 토론하는 것이 25명(17.5%), 직접 해보는 방법이 20명(14.0%)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에 대해 선생님의 설명이 어려운 이유를 조사한 결과 단어 뜻을 모르겠다는 응답이 20명(14.0%), 수화가 부족하다, 설명이 부족하다가 각각 13명(9.1%)으로 나타났다.

### 3) 음악의 생활화

#### (1) 평상시 음악 감상 여부

평상시 음악 감상 여부에 관한 조사 결과, 그렇다고 응답한 수는 92명(64.3%),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수는 51명(35.7%)으로 조사되었다. 평상시 음악 감상 여부에 관한 결과는 <표 IV-38>와 같다.

<표 IV-38> 평상시 음악 감상 여부

(N=143)

내용	빈도(n)	백분율(%)
그렇다	92	64.3
그렇지 않다	51	35.7

#### (2) 감상 매체

음악을 들을 때 주로 이용하는 감상 매체에 대한 조사 결과, TV가 63명(44.1%)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이 38명(26.6%), mp3가 24명(16.8%), 기타가 13명(9.1%) 순으로 조사되었다. 감상 매체에 관한 결과는 <표 IV-39>와 같이 조사되었다.

<표 IV-39> 감상 매체

(N=143)

내용	빈도(n)	백분율(%)
TV	63	44.1
인터넷	38	26.6
mp3	24	16.8
오디오	3	2.1
라디오	2	1.4
기타	13	9.1

(3) 음악을 들을 때의 기분

음악을 들을 때의 기분에 관한 조사 결과, 기분이 좋다고 응답한 수가 65명(45.5%)로 가장 많았고, 리듬이 느껴진다는 응답이 25명(17.5%),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가 23명(16.1%), 시끄럽다가 12명(8.4%) 등으로 조사되었다. 음악을 들을 때의 기분에 대한 결과는 <표 IV-40>와 같다.

<표 IV-40> 음악을 들을 때의 기분

(N=143)

내용	빈도(n)	백분율(%)
기분이 좋다	65	45.5
리듬이 느껴진다	25	17.5
시끄럽다	12	8.4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23	16.1
잠이 온다	9	6.3
기타	9	6.3

#### (4) 음악 발표회 경험

음악 발표회 경험에 관한 여부는 <표 IV-41>와 같이 나타났다.

<표 IV-41> 음악 발표회 경험

(N=143)

내용	빈도(n)	백분율(%)
그렇다	86	60.1
그렇지 않다	57	39.9
경험했던 학생의 소감(n=86)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았다	15	10.5
사람들이 웃을까봐 창피했다	22	15.4
연주를 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다	21	14.7
내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20	14.0
기타	8	5.6

<표 IV-41>에서 보는바와 같이 음악 발표회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결과에서는 그렇다가 86명(60.1%),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수가 57명(39.9%)으로 조사 되었으며, 음악 발표회를 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에게 발표를 하고 난 후의 기분에 대해서 물었을 때, 사람들이 웃을까봐 창피했다는 응답자가 22명(15.4%), 연주를 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다가 21명(14.7%), 내 자신이 자랑스러웠다는 응답은 20명(14%)으로 조사 되었다.

#### (5) 음악회 가본 경험

음악회에 가본 경험이 있는지 물었을 때,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42명(29.4%), 가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수는 101명(70.6%)로 조사되었다. 가본 경험이 없는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었는데, 갈 기회가 없었다가 31명(31.7%)으로 가장 많았고, 음악회에 가도 재미가 없다가 27명(26.8%), 음악회에 가도 들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수는 18명(17.8%) 등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음악회에 가본 경험이 있는지에 관한 결과와 그에 대한 이유는 <표 IV-42>와 같이 조사되었다.

<표 IV-42> 음악회 가본 경험

(N=143)

내용	빈도(n)	백분율(%)
있다	42	29.4
없다	101	70.6
가지 않은 이유(n=101)		
갈 기회가 없어서	31	30.7
듣지 못하기 때문에	18	17.8
재미가 없어서	27	26.8
기타	16	15.8
무응답	9	8.9

(6) 노래방 선호도

학생들에게 노래방을 선호하는지에 대해 물었을 때, 노래방 가는 것을 선호한다는 응답자가 72명(50.3%), 노래방 가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수는 71명(49.7%)으로 조사되었다. 노래방 선호도에 관해서는 <표 IV-43>와 같다.

<표 IV-43> 노래방 선호도

(N=143)

내용	빈도(n)	백분율(%)
그렇다	72	50.3
그렇지 않다	71	49.7

(7) 가족 중 전공자 여부

가족 중 음악 전공자가 있는지 물었을 때, 있다는 응답자가 19명(13.3%), 없다는 응답자가 124명(86.7%)으로 조사되었다. 가족 중 전공자 여부에 대한 결과는 <표 IV-44>와 같이 나타났다.

<표 IV-44> 가족 중 전공자 여부

(N=143)

내용	빈도(n)	백분율(%)
있다	19	13.3
없다	124	86.7

(8) 자신이 음악을 전공한다면 원하는 전공 영역

자신이 만약 음악을 전공한다면 어떤 전공을 원하는지 물었을 때, 기악으로 응답한 수가 62명(43.4%)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작곡이 23명(16.1%), 성악이 11명(7.7%), 기타 응답자가 47명(32.9%)으로 응답하였다. 자신이 음악을 전공한다면 원하는 전공 영역에 관한 결과는 <표 IV-45>와 같이 조사되었다.

<표 IV-45> 자신이 음악을 전공한다면 원하는 전공 영역

(N=143)

내용	빈도(n)	백분율(%)
성악	11	7.7
기악	62	43.4
작곡	23	16.1
기타	47	32.9

(9) 기타 음악 수업과 음악 교육에 대한 자유 기술

음악 수업과 음악교육에 대하여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한 결과 크게 3가지의 주제가 나왔고 다양한 내용들을 언급해 주었다. <표 IV-46>에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학생들의 표현 그대로의 내용은 <부록 4>에 첨부하였다.

<표 IV-46> 기타 음악 수업과 음악 교육에 대한 자유 기술

<p>악기를 배우고 싶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를 배우고 싶다.</li> <li>·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li> <li>· 바이올린 배우고 싶다.</li> <li>· 악기를 잘 다루고 싶다.</li> <li>· 여러 가지 악기를 다루었으면 좋겠다.</li> <li>· 리듬악기와 가락악기를 배우고 싶다.</li> <li>· 드럼을 배우고 싶다.</li> </ul>
<p>노래를 배우고 싶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노래로 배우고 싶다.</li> <li>· 노래 부를 때 계이름을 정확히 알고 싶다.</li> <li>· 대중가요를 배우고 싶다.</li> </ul>
<p>음악회에 가고 싶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악회를 가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음악회에 꼭 가고 싶다.</li> </ul>

## V. 논의

본 연구는 청각장애 중학교의 음악교과 실태와 학생들의 음악활동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사에 대해서는 음악실 환경, 교육과정 운영 그리고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학생에 관해서는 음악소리의 인지 및 식별 여부와 음악 교과의 선호도 및 인지도 그리고 음악의 생활화 부분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 1. 청각장애 중학교 음악교과 실태

청각장애 중학교 음악교과 실태는 음악실 환경과 교육과정 실태, 교수·학습 방법의 실태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학생들의 기초사항에서 음악 교과에 관한 사교육 경험을 물었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사교육 경험이 없었으나, 일반 학교 학생들에게 조사한 결과보다는 수치가 높게 나왔다. 먼저 음악실 환경에 관한 부분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청각장애 중학교 음악실의 환경 실태를 살펴본 결과, 음악실은 대부분 있었으나 많은 학교에서 방음실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악기는 리듬악기와 피아노는 대부분 가지고 있었고 전자악기인 신디사이저와 드럼 등은 절반 정도 가지고 있었고 관악기와 현악기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가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었다. 또한 국악기 중 단소와 사물놀이 악기는 기타 의견에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현악기는 서양현악기와 마찬가지로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기자재의 경우 기본적으로 컴퓨터는 대부분 가지고 있었고 프로젝션 TV는 과반수 이상이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디오와 CD플레이어는 음악 수업의 가장 기본적인 기자재임에도 불구하고 절반정도 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청각장애 학교의 음악시설이 소규모의 학교와 흡사하다고 사료되어 농촌지



역 소규모 학교 음악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한 정혜영(2006)의 논문을 살펴본 결과, 학교에 있는 음악 시설이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권보나(2005)의 연구에서는 음악실의 시설이 대부분 잘 갖추고 있다는 결과가 나와 지역마다 차이가 있었다. 음악 시간에 악기 및 기자재 활용 정도에 관해서도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음악실의 환경이 열악함을 알 수 있었다. 기자재 활용에 대해 미활용 하는 이유로 권보나(2005)는 학생들의 호응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또 교사의 전공과 연관성 있는 수업만 진행하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많은 부분 차지한 것으로 보아 교사들이 기자재 활용에 있어서 다양한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 주었다.

한편, 청각장애학교 음악교육의 실태를 조사한 김순연(2006)에 의해서도 학교 내 음악 자료 보유 정도에서 음악실과 피아노 및 평준화 시설만 갖추어져 있는 응답이 35.6%로 가장 높게 나왔고, 음악실에 감상시설을 포함한 여러 가지 악기가 갖추어져 있다는 응답이 28.8%, 음악실은 있으나 자료는 거의 없다는 응답이 23.7%로 나타나 음악실의 환경이 열악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권은영(2006)의 연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음악 교실 내의 시설 및 환경에 대한 면담 설문 결과, 한 교사는 ‘소리의 진동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과 지원이 많이 필요한 실정이다.’고 하였고, 다른 교사는 ‘악기 탐색을 위해 다양한 악기들이 고루 갖추어져 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또한 2007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의하면 교수·학습 시설 및 기자재 관련 부분에서 방음 시설을 한 음악실을 갖추도록 하며, 리듬 악기, 가락 악기, 건반 악기, 전자 악기 등 다양한 악기를 구비하여 활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멀티미디어 기기를 포함한 다양하고 질 높은 음향 시설을 구비하여 활용한다(교육과학 기술부, 2008)고 하였으나 음악과의 시설이 소규모 학교와 청각장애 학교에 관해서 많은 부분 시설과 기자재, 악기 보유 등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청각장애 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리의 있고 없음 등을 눈으로 보고 진동이나 손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직접 만져 보고 해보는 방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물을 통한 교육이 많은 효과가 있지만 아직까지 청각장애 학교에서는 다양한 악기들을 구비하고 있지 않으며, 기본적인 악기마저 없는 실정이어서 다양한 음악 활동을 하는데 많은 한계가 따른다. 또한 청각장애 학생들은 시각을 활용한 수업을 선호하므로 기자재의 확보가 많은 부분에서 교수·학습영역에 효과를 가져다 주므로 음악실에서는 다양한 기자재가 보유되어 각 영역에 맞는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한편으로, 음악 교사가 기존에 있는 악기들을 간과할 것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악기들을 잘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청력을 개발시켜주고 잔존 능력과 잠재력을 키워주는 것은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부족한 음악 시설 환경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악기를 최대한 잘 활용하여 학생들이 1인 1악기를 다룰 수 있도록 함으로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기르고, 나아가 자아실현에 이를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교사들의 교육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육과정 종류를 알아본 결과, 절반의 교사들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사용하고 있었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기본교육과정을 함께 사용하는 교사들은 35%정도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김순연(2006)은 청각장애학교에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반면, 시각·지체·청각장애학교의 과학과를 연구한 최성욱(2009)의 논문에서는 대부분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기본교육과정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음악과는 병행하는 정도보다 과반수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각장애 학생들에게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이 따른다. 청각장애 사회과를 연구한 최사문(2006)의 연구에 의해서도 교육과정을 적용하지 않는 수가 대부분으로 나타났고 그 이유는 청각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이 음악과에서도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다. 또한 수업 시수도 일반 학교에 비해 적고, 그

에 비해 이수해야 할 교육과정은 많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을 위주로 가르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권은영(2006)의 연구에서도 조사된 것처럼 음악 교육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설문 결과에서 한 교사는 ‘청각장애학교 음악교육 과정은 일반교육과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일반학생에게 맞는 음악교육방법이 있을 것이고 장애학생들과 각각 가지고 있는 장애에 따라 적합한 교육과정이 있을 것인데 모든 것을 일반교육과정에 맞춰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점이다.’라고 하였으며, 다른 교사는 ‘예·체능 교육이 일반 학생에 비해 많이 강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교육과정을 그대로 운영하기 때문에 음악수업시간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대해 2008년 개정 특수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기본교육과정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유형, 교육배치, 정신 연령과 관계없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적용이 어려운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적용하도록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그러나 청각장애학생들에게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 아니면 기본교육과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서도 그 영역이 너무나 넓고 포괄적이고, 반면 기본교육과정은 범위가 너무 좁아서 둘을 병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중복장애가 늘어감에 따라 같은 교실에서 다양한 학생들을 수준에 맞춰 가르치기에는 교사의 많은 인내와 노력, 특수교육에 대한 노하우가 필요하다.

수업횟수는 대부분 1회나 2회의 수업을 하고 있었고, 수업 시간도 대부분 45분이나 40분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수업 시수의 적합성을 알아본 결과, 대부분 수업 시수는 적당하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지역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연구한 이조은(2007)의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음악 수업 시간은 1시간이었으며, 2시간은 조금 있었으며 3시간은 미미하게 있어서 본 조사와는 차이점이 있었다. 일반학교의 경우 권보나(2005)는 수업시수에 대한 조사에서 학생들은 수업시간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일반학교의 조사 결과 김은지(2003)의 연구에서 학생과 교사 모두 2시간의 음악 시간을 적

당한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교과서의 적합성에 관한 질문에서 교사들 절반은 적합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조은(2007)의 연구에서도 학년별 지도 내용의 적절성을 질문하였을 때 36%가 적합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미술교과를 대상으로 한 김운근(2003)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미술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일반학교 미술교과서를 그래도 사용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청각장애용 교과서가 필요하다’고 한 것처럼 음악과에서도 청각장애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교과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기본교육과정은 폭과 깊이에 있어서 너무나 수준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장애의 영역과 특성이 각기 다른 학생들에게 두 가지의 교과서를 사용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으며, 교사가 수업 시간마다 자료를 제작하여 사용하는 것도 시간적 제약이 많이 따른다. 이에 대해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과서가 제작되어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음악 활동 중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역으로는 악기 연주하기가 가장 많았고, 음악 교육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대부분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에 관해서는 삶의 질 향상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음악의 영향에 관해서 권보나(2005)의 연구에서 학생들은 인격형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하였고, 이지연(2008)은 음악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스트레스 해소와 기분 전환이 된다고 하였고, 음악은 생활의 활력소가 되며 도덕성과 사회성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이처럼 음악은 우리 삶에서 감정을 풍요롭게 하며, 정신적인 평정심을 주는 역할을 한다.

셋째, 청각장애 중학교 음악과의 교수 · 학습 방법에 관한 부분을 조사한 결과, 사용하는 학습 자료로는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최성욱(2009)의 논문에서도 청각장애 학교에서 과학과 지도 시 자체 제작하여 사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 교과는 다르지만 청각장애 학교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의사소통 방법은 응답자 대부분이 수화와 구화를 병행하여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응답은 김혜정(2005)의 연구에서도 조사된 바와 같이 청각장애 학생들에게 대부분 수화와 구화를 병행하여 의사소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음악 활동 영역인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음악 만들기, 감상하기의 조사에 관한 내용들이다.

먼저 교사들에게 음악 활동 중 가장 필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역에 관해 질문했을 때, 악기 연주하기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반면 일반학교에서 교사들은 김은지(2003)와 이희영(2003)의 연구에서처럼 음악 수업 시 가장 비중을 두는 분야로 가창영역을 대부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나 일반학교와 청각장애학교에서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악기 연주하기’는 교사들이 가장 잘 지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과 가장 지도하기 즐거운 영역에 관한 질문에서도 동일한 결론으로, 가장 지도하기 즐거운 이유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흥미가 많다고 하였고, 학생들의 장애 때문에 이 영역을 지도한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악기 연주하기는 가창이나 감상 등 다른 활동이 제공할 수 없는 특별한 음악적 경험을 학생에게 제공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또한 청각장애학생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경험해봄으로 감상을 통해 소리를 인식하는 것보다 직접 악기를 만져보고 소리를 만들어봄으로 더 많은 음악적 체험을 할 수 있으므로 청각장애 음악교사들은 악기 연주하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음악활동에 관한 영역에 대해서 ‘노래 부르기’를 지도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1순위로 많은 응답을 한 것은 수화를 가지고 노래하기를 가르치는 방식이었다. 2순위로 나온 결과는 구화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3순위에서는 피아노 반주를 통해 노래를 지도한다는 결과가 있었다.

악기 연주하기 지도 방법에서는 1순위 응답자에서 시범보이기를 통해 지도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고, 2순위로는 개별지도가 가장 많이 응답하였

고, 3순위에서는 짝끼리 연습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기악 교육은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 조건을 넘어서 악기가 가지고 있는 소리의 울림 등을 통하여 표현의 가능성을 크게 확장 시켜준다(정현진, 2007). 효과적인 기악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사가 악기의 쓰임새와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악기의 특성과 학습자의 특징을 잘 살려 학습자에게 가장 어울리는 악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며, 학습자의 흥미를 고려하고 수업의 연계하여 악기를 연주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 다음 음악 만들기 지도 영역을 물었을 때, 1순위 응답 중 리듬 만들기 로 음악 만들기를 지도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2순위에서는 리듬 만들기 로 지도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3순위에 가서 작곡을 지도한다는 응답이 많이 나왔다.

감상하기 지도 방법에서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동영상을 통해 감상하기를 지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순위 에서는 자막 비디오를 통해 응답한다는 결과가 많았다. 3순위에서는 CD플레이어를 통해 음악 감상하기를 지도한다는 응답이 나타났다. 음악 감상 지도에 관한 전혜경(2008)의 연구에 따르면 음악 감상 시 인터넷을 활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오디오, DVD를 활용하여 감상 수업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수·학습 방법 중 달크로즈(Emil Jaques-Darcroze, 1865~1950), 코다이(Zoltán Kodály, 1882~1967), 오르프(Carl Orff, 1895~1982)가 고안해 낸 학습 매체들을 얼마나 활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학습 매체의 활용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그 결과 노래 부르기를 지도할 때는 시창, 청음을 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악기 연주하기 영역에서는 즉흥 연주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음악 만들기에서는 즉흥연주와 리듬 읽기 등을 활용하였고, 감상하기에서 음악 매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감상하기가 많은 부분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고, 다양한 방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음악 매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상당히 많은 영역에 분포되어 나타났다.

학생들의 음악 생활화를 위한 과제물로는 악기 연습해오기를 과제물로 내주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기타, 노래 외워오기가 있었으나, 음악회 다녀온 후 감상문 쓰거나 좋아하는 음악목록 작성해오기에 관해서는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청각장애 학생들의 음악 활동 실태에 관한 결과에서도 나와 있듯이 청각장애 학생들은 음악회를 다녀오지 않는 비율이 70%이상이나 되어서, 일반 학교 학생들에 비해 음악회를 다녀온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해 교사들은 학생들과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음악회를 경험하도록 하여, 평소에 갖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음악회를 통해 새로운 음악의 모습들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 2. 청각장애 중학교 음악수업의 문제점 및 개선점

청각장애 중학교 학생들 대부분은 음악에 대해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학교에서 다루어지는 영역은 한정된 부분들임을 알 수 있다. 문제점과 개선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활동으로 감상하기와 노래 부르기를 들 수 있다. 그 이유로 학생들의 장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가르치는 방법을 잘 몰라서, 프로그램의 부족 순으로 조사 되었다.

교사들에게 가장 지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에 대해 물었을 때에도 역시 감상하기가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다음은 노래 부르기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학생들은 가장 어려운 활동으로 절반정도의 학생들이 음악 만들기를 꼽았으며,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감상하기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활동으로 감상하기를 많이 꼽지 않은 이유는 감상활동은 교사의 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학생들에게 능동적인 학습태도를 이끌어 낼 수도 있고, 아주 소극적인 방식으로도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청각장애학생들에게 감상활동을 지도할 때 소리의 인지가 부족한 학생들에게 감상활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눈으로 동영상만 바라보고

있을 때가 많아 감상활동의 진정한 심미적 체험이 어렵게 때문이다.

교사들이 감상하기와 노래 부르기를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감상이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소리를 통해 음악을 듣고 그 음을 감지하여 표현하고, 음을 인식하고 느껴야 하는데 소리자체를 듣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 소리를 입으로 표현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이다. 장경화(2006)는 음악교과는 청각장애 교육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발성”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교과라고 하였다. 노래 부르기를 통해 학생들은 발화와 독화를 할 수 있으며, 정확한 발음을 인식할 수 있다. 음악적 학습에서 소리가 왜곡되게 지각되는 과정이 있다할지라도 외부로부터 청각장애아이 마음에 의미 있는 자극을 경험하게 되면 이들의 심리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김관일, 1994). 감상하기를 지도할 때 교사들이 먼저 감상영역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학생들이 가장 감상하는데 적합한 방법을 연구하여야 한다. 청각장애학생들의 특성을 살리고 그들의 강점을 살려 시각을 통한 감상, 신체표현을 통한 감상 등을 구안하여 감상하기를 적용하여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해 창의력을 계발하고 음악성을 기르도록 할 수 있다. 전해경(2008)은 감상 지도 시 동기 유발을 위해 그림 악보를 이용하여 감상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김은지(2003)에 의하면 일반 교육에서 학생들은 교과서의 노래들보다는 대중음악을 더 선호하였는데, 청각장애 학생들에게 특히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자료들이다. 표제 음악일 경우 음악의 내용을 그림으로 보여주거나 관련 음악을 통한 영화, 영상 자료 등을 활용하여 감상 활동을 지도한다면 학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다. 이홍수(1990)는 음악과의 지도 방법 중 통합적 접근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음악의 개념과 원리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악곡을 구성하는 요소들과 생성 원리들의 상호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수업 형태이다. 음악 활동 중 감상영역에서 표제음악이나 다른 음악적 개념



을 도입하여 통합적인 접근 방법으로 음악 수업을 전개한다면 개념과 원리를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종합적인 학습을 할 수 있다. 또한 교과서 위주의 수업이 아닌 대중음악, 학생들이 선호하는 음악을 가지고 노래를 지도하고 가사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단어위주보다 의미위주로 노래를 가르친다면 학생들은 더욱 흥미를 가지고 노래 부르기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교사들은 전문성 부족,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을 들었다. 먼저 교사의 전문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권은영(2006)의 경우 심층면담에서 한 교사는 ‘청각장애 학생을 일반학생과 같은 방법으로 지도해선 안된다. 음악교육은 교육적인 목적을 가짐과 동시에 치료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방면에서 음악적 능력을 고루 갖춘 교사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다른 교사는 ‘전문성이란 말이 아주 전문가적인 수준이라는 말보다 교과목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듯이 음악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교과목에 대한 자신감과 전문성은 아주 중요한 자질이다. 또한 이조은(2007)도 교사들은 특수교육자격증만 있는 것보다 특수교육과 음악교육을 모두 소지한 교사가 특수교육 음악 교사로 적합하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 결과 특수교육과 음악교육을 모두 전공한 교사는 스물 명 중 여섯 명인 30%였다. 음악 교과는 타 교과에 비해 실기 능력을 많이 요구하므로 이 영역에서는 교사의 전문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각장애학교 음악교사는 음악전공자가 아닌 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사들이기 때문에 음악을 가르치는데 있어서 전문성에 대한 부족을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문성의 부족을 느끼는 부분은 악기를 지도하는 영역으로 교사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다. 음악은 듣고 이해하는 것인데 먼저 듣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청각장애학생들에게 음악을 어떻게 듣게 할 것인가 수세기 동안 고

민하고 고심하며 그 방법을 찾는 경우가 청각장애 특수교육의 음악교사들일 것이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특수교육이 필요하고 특수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음악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 교사의 전문성은 먼저 교사가 출선하여 필요한 영역에 대한 연수와 자기 장학 등을 통해 전문성을 신장해야 할 것이다. 음악뿐 만 아니라 어떤 과목도 교사의 교육을 통해 그 교과를 학생들은 접하게 된다. 교사가 자신의 영역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전문성은 신장될 수 없다. 청각장애 학생들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청각장애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또한 음악을 어떻게 접목시키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이를 위한 교사들 간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해 기존의 전국음악교사협회나 청각장애학교 음악교사 모임 등을 갖추어 음악 교사들 간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정보교환 및 청각장애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유익이 되는 연구 활동을 하면 더 나은 교육방법이 모색될 것이다.

또한 의사소통능력은 가르치는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청각장애학생들에게 특히 필요한 언어능력은 학생들이 어떤 언어를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교사에게 필요한 능력이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 대부분의 교사들이 수화와 구화를 병행하여 사용하는데 그것은 그만큼 수화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수화 능력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교사는 끊임없이 학생들과 대화하고 수화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에 대한 개선방법의 일환으로 교사들이 학교에서 학생들 지도 시 겪는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조사해보았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대부분의 교사들은 동료 교사와 대화를 하거나 상담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학교 음악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한 송은경(2002)에 의하면 교사들은 열악한 교육환경이나 수업시수의 축소로 인해 직무 만족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사들은 음악실의 환경이나 기자재를 개선하거나 자기 계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 계발을 위해 전공 실기를 계발하는 것이 가장 많았고, 즉흥 연주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음악 교육 이론을 연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공 실기를 계발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신장한다는 의미와 같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어 교사들은 전문성 신장을 위해 실기 부분을 많이 계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수·학습 방법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들에 관한 질문에 많은 교사가 교사의 다양한 연수를 원했고, 음악 교과와 관련된 시각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응답하였다. 교수·학습 방법에 있어서 교사들이 원하는 연수는 청각장애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배우는 것이다. 또한 악기 및 실기에 관한 연수를 통해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참고로 일반 음악 교육의 조사결과로서 김은지(2003)는 음악 교사가 받고 싶어 하는 연수 분야로 악기 연주를 가장 많이 꼽았는데, 청각장애 학교의 음악 교사들은 악기 지도하기를 가장 선호하는 한편, 악기를 통해 자기 연수를 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이 어떤 악기를 접했을 때, 자신감을 얻고 음악의 흥미를 얻게 되는지 발견하여, 교사들이 그 악기를 배우고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면 음악 교육과 음악 수업에 큰 즐거움을 학생들에게 줄 수 있을 것이다.

### 3. 청각장애 중학교 학생들의 음악 활동 실태

청각장애 중학교 학생들의 음악 실태에서는 음악 소리의 인지 및 식별 여부, 음악 교과의 선호도 및 인지도 그리고 음악의 생활화에 관해 조사하였다.

첫째, 음악 소리의 인지 및 식별 여부에 관해서 살펴보면, 소리가 잘 들린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절반정도였다. 그러나 악기 소리의 변별은 23.8%로 적었지만 조금 변별할 수 있다는 응답이 절반정도인 것을 볼 때 청각장애 학생들의 악기 소리 인식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일반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감상 시 악기 파악정도를 알아본 결과 전해경(2008)에 의하면 약 60%의 학생들이 조금 구분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청각장애 학생들에게는 감상 시에 악기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단음으로 악기를 들려주었을 때 악기를 구분하는 정도이며, 지속적인 경험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잘 들리는 악기 소리 중 사물놀이 4가지를 제시하였을 때 많은 학생들이 북소리를 가장 쉽게 들을 수 있다고 하여 저주파수의 소리가 더 유리함을 알 수 있었다.

수업 중 소리를 듣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기타에 응답한 학생들이 절반정도 되었고, 그 다음으로 보청기 착용이 불편하다고 하였다. 기타 응답에서는 시끄럽다, 소리가 너무 크다는 응답과 소리를 듣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없다는 서술 의견도 많았다. 일상생활 중 가장 잘 들리는 소리는 자동차소리와 기차소리를 가장 잘 듣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영옥(2007)은 일상 환경음의 강도 중 1m 거리에서의 정상적인 대화 소리는 60~70dB정도이고, 보통 혼잡한 자동차소리는 70dB정도로 해당되며, 3m 떨어진 곳의 조용한 자동차 소리는 50dB정도라고 하였다. 학생들은 아마도 강도가 있는 큰 음들을 잘 듣는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음악 교과의 선호도 및 인지도를 살펴본 결과 음악 활동에 관해 흥미가 있는지 물었을 때 반반으로 나왔다. 재미있는 이유에 관해서는 선생님의 수업방법이 좋다는 응답, 음악이 좋기 때문에, 음악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고, 재미없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그 이유를 음악이 어렵고,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 원하는 것을 배우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여 학습 소재에 관한 교사들의 생각이 변화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음악 영역 중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노래 부르기'와

‘악기 연주하기’였으며, 가장 즐거운 음악 활동도 ‘노래 부르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악기 연주하기’였다. 이 결과는 권보나(2005)와 이회영(2003)의 연구에서도 나와 있듯이 청각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학생들은 가창영역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일반학교에서 지요아(2010)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은 감상영역을 가장 선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에 대해 좀더 연구가 상세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변성기 학생들이 목소리가 변하면서 노래 부르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그 이유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창 영역을 선호하는 이유는 노래를 부르는 것은 인간 본래의 자유와 표현에 관한 것으로 누구나 쉽게 노래를 흥얼거리고 음악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달크로즈가 ‘인간은 본래 신체적으로 리듬감을 갖고 태어난다’(권덕원, 2006, 재인용)고 한 것처럼 학생들은 자신만의 리듬과 감각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다. 교사들의 설문결과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점적으로 다루는 활동이 악기 연주하기였다. 그에 비해 학생들은 노래 부르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활동을 좀더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교사 중심의 수업이 아닌 학생 중심의 수업으로 제재와 곡 선정에 있어 수업을 진행한다면 학생들의 흥미와 창의력을 계발하는데 한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또한 노래 부르기의 곡을 선정 할 때 학생들의 발화에 도움이 되는 가사를 선정하여 좀더 학생들이 독화나 발화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음악수업이 될 수 있도록 교사들은 노력해야 한다.

가장 어려운 음악 활동으로는 음악 만들기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 결과는 권보나(2005)의 연구와는 다른 것으로 일반 학생들은 음악 활동 영역 중 가장 취약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기악활동이라고 하였는데, 청각장애학생들에게는 창작 활동 즉 음악 만들기 활동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고 싶은 악기에 대해 선택하라고 하였을 때 학생들 대부분은 피아노와 드럼을 가장 선호하였다. 이에 대해 김은지(2003)의 연구에서 일반학교 학생들은 리코더나 단소를 선호하는 경향이 가장 높았으며, 관악기 보다는 현악기를 더

선호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선호하는 악기부분이 청각장애 학생들과는 차이가 있었다. 시대적인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청각장애 학생들은 다양한 부분에서 음악적 흥미를 가지고 있으며, 소리의 울림이 큰 악기들을 보다 선호하고, 눈으로 보기에 더 멋있는 악기들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음악 수업 방법으로는 선생님의 설명이라고 답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직접 해보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또한 가장 이해하기 힘든 음악 수업 방법도 교사의 설명이라고 답하여 이해하기 쉬운 음악 방법에 응하지 않은 학생들 대부분이 어려운 방식에 선생님의 설명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해석된다. 교사의 설명이 어렵다고 응답한 학생들에게 그에 대한 자세한 질문을 하였을 때, 단어 뜻을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고, 수화 부족이나 설명이 너무 빠르다는 응답이 많았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을 전문성 부족으로 생각하였으나, 학생들은 수업 방법이 어려운 이유로 선생님의 설명과 수화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교사들에게 더 많은 수화 능력이 필요하게 되었음을 시사해주었다.

셋째, 음악의 생활화 영역을 조사하였는데 평소 음악을 얼마나 접하고 감상하는지에 관해 물었을 때, 응답자 중 64.3%가 감상한다고 하여 음악이 학생들의 삶 속에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지요아(2010)의 연구에서도 음악 외 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활동으로 학생들은 감상하기영역을 꼽았다. 감상매체로는 TV가 가장 많았고 인터넷, mp3순으로 응답하였다. 음악을 들었을 때의 기분이 어떤지 질문하였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분이 좋다고 하였고, 리듬이 느껴진다고 응답하였다.

음악 발표회 경험이 있는지 물었을 때 발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60.1%로 청각장애학교에서 많은 음악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의 음악 발표회 경험 후의 소감에 관해서는 사람들이 웃을까봐 창피했다는 반응도 있는 반면, 연주를 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다는 응답도 많았으며, 스스로 자랑스러웠다는 응답도 있었다. 청각장애 학생들에게 음악 활동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음악의 본질을 실현시키는 것과도 같다. 학생들이 좀더 자신감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정확하고 화려한 소리보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살려 노력하고 그에 따른 결실을 사람들 앞에 보여줌으로써 음악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자리를 갖는다면 학생들은 자신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음악회를 가본 경험이 있는지 알아보았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지 않은 이유로는 갈 기회가 없어서, 가도 재미가 없어서, 가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라고 응답하였다. 일반 학생들은 대부분 1년에 1번이상은 음악회를 가는 것으로 김은지(2003)는 밝혔으나, 청각장애학생들 70%이상은 음악회를 가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학생들과 청각장애학생들이 음악회의 경험이 많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그에 따라 음악 교사들은 필히 학생들과 함께 현장체험을 다녀오는 것을 권장한다. 학생들은 음악회에 갈 기회가 없어서 가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간다고 해도 재미가 없고 듣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음악회를 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관련된 질문으로 교사들에게 음악의 생활화를 위한 과제를 어떤 항목을 내어주느냐에 대한 응답으로 악기 연습해오기가 가장 많았으며 노래 외워오기 등을 과제로 내어주었으나 음악회 다녀온 후 감상문 쓰는 것에는 아무런 응답자가 없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음악을 경험하고 학교 밖에서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적어도 1년에 1번은 음악회를 가보도록 학생들에게 권면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 중에는 음악을 전공한 가족들도 조금 있었으며, 만약 음악을 전공한다면 어떤 음악을 전공하고 싶은지 물었을 때 기악, 기타, 작곡, 성악 순으로 응답하였다. 기악의 기타의견으로는 피아노와 드럼이 가장 많았고 기타, 가야금, 바이올린, 장구, 첼로, 클라리넷, 마림바, 리코더, 북 등 다양한 악기들을 배우고 싶다는 의견 이였다. 이처럼 학생들은 음악에 관한 관심이 많고 악기를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을 알려주었다.

노래방 선호도를 물었을 때 좋아한다는 응답이 절반 정도였는데 이에 관련

된 연구로 일반 교육에서 노래방 문화에 대한 교사의 생각으로 대부분의 교사들이 긍정적이거나 보통이라는 응답을 하였다(정혜영, 2006). 대부분 청각 장애 학생들도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고, 가장 선호하는 음악 활동 영역도 노래 부르기인 것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음정과 가사전달은 정확하지 못하나 마이크를 잡고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며 즐길 줄 안다. 음악환경에서 노래방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도 살펴보았듯이, 학교에 있는 노래방 기기를 자주 이용하여 학생들이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마음껏 노래를 통해 음악을 접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 친근하게 음악을 느끼고 몸으로 음악을 경험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 V. 결론 및 제언

### 1. 결론

이상의 과정에서 제기된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연구과정에서 분석된 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청각장애 중학교 음악실 환경 실태 결과, 음악실은 대부분 있었으나, 교육과정에서 언급하고 갖추도록 한 방음실은 대부분 없었고 악기는 리듬악기, 피아노, 신디사이저 순으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악기들이 전반적으로 비치되어 있었다. 몇몇 학교에서는 흔하지 않은 악기들 즉, 클라리넷, 마림바, 비브라폰, 색소폰, 해금 등을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악기 구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기자재로는 컴퓨터와 프로젝션 TV가 있었고, 오디오는 절반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음악실의 환경이 많이 미비함을 알 수 있었다. 음악과 교육과정은 절반정도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사용하였고, 35%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기본교육과정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 수업 시수는 대부분 적합하다고 하였으나, 교과서에 대한 적합성은 극히 소수만이 적합하다고 응답하고 절반이상이 적합하지 않다고 하여 청각장애 학생들의 특성을 살린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필요함을 시사해주었다. 음악활동 중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역으로 악기 연주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음악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대부분 음악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학습자료는 직접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의사소통은 대부분이 수화와 구화를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교사들이 가장 잘 지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과 가장 지도하기 즐거운 영역은 악기 연주하기로 나타났고, 학생들에게 음악 생활화를 위한 과제물로도 악기 연습해오기가 가장 많아 음악 활동 영역이 악기 연주하기로 치우쳐져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둘째, 청각장애 중학교 음악 교육의 문제점으로 교사들이 가장 지도하기 어렵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으로는 감상하기였으며, 그 이유로는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어려움을 들었다. 또한 학생들 지도 시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으로는 교사들의 전문성과 의사소통 능력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한 문제 해결방법으로 대부분의 교사들은 동료 교사와 대화 및 상담을 하는 것, 연수를 통한 전문성 신장을 꼽았다. 교수·학습 방법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교사의 다양한 연수와 음악교과와 관련된 시각 자료 활용이라고 하였다.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연수로는 청각장애학생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에 관한 부분이 많았다. 음악 활동에서 교사들은 균형된 발전을 위해 통합적인 접근 방법을 가지고 음악 수업을 접근하여야 하며, 끊임없는 전문성 신장을 위해 자기 장학, 자기 연수 그리고 전국청각장애음악교사의 모임 등을 통해 청각장애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음악 수업을 개발하여야 한다.

셋째, 청각장애 중학교 학생들의 음악활동 실태를 살펴본 결과, 학생들은 음악을 즐겁게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많았다. 또 다양한 악기를 다루고 싶어 하고 특히 피아노, 드럼, 바이올린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 드럼을 가르치고 연주하게 한다면 학생들은 더욱 큰 흥미로 음악을 접하고 음악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학생들에게 가장 즐거운 음악활동은 노래 부르기와 악기 연주하기였으며, 가장 어려운 활동은 음악 만들기라고 하여, 교사들이 생각하는 감상하기와 많은 차이가 있었다. 또한 가장 이해하기 쉬운 수업방법과 어려운 수업방법이 “선생님의 설명”이라고 하였는데, 선생님의 설명이 어려운 이유로는 단어의 뜻을 모르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수화가 부족하고, 설명이 너무 빠르다는 이유 등이 있어서 교사들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해주었다.

음악의 생활화를 살펴보았을 때, 대부분 학생들이 TV를 통해 음악을 접하고 인터넷이나 mp3 등으로 음악을 듣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많은 학생들이 음악을 적극적인 자세로 접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학생들의 음악에 대한 흥미는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면 정말 음악에 대해 완전히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 두 가지의 간극을 메꾸는 것이 교사의 몫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다수의 학생들이 음악회를 가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학교 학생들에 비해 음악회를 다녀온 경험이 많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청각장애 학생들에게 음악회 다녀온 경험을 과제로 내주어 음악을 조금이라도 접하고, 경험과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청각장애학생들에게 음악회를 갔다온 후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등의 다양한 접근방식을 가지고 학생들이 좀더 풍부한 경험으로 음악을 접하고 음악을 생활화하고 음악을 즐기는 태도를 심어주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해주었다.

## 2. 제언

이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청각장애 중학교 음악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청각장애 중학교의 음악 수업에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감상하기와 음악 만들기를 청각장애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음악 활동이 다양하고 통합된 방법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청각장애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음악과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개발하여 전국의 청각장애 음악 교사 모임을 통한 청각장애 학생들의 특성과 수준에 적합한 음악과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각장애 중학교 학생들의 음악 수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요구에 따른 음악 수업을 통하여 학습효과와 학생들의 음악에 대한 태도 및 생활화 영역의 변화에 대한 실험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전국의 청각장애 중학교 음악교사와 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음악활동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본 연구를 통해 청각장애 학생의 음악 활동 지도를 위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

## 참 고 문 헌

- 강정희 (1985). 청각장애아의 리듬 교육에 관한 실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교육과학기술부(2008). 중학교 체육·음악·미술 교육과정 해설.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과학기술부(2009). 특수학교 교육과정 해설(Ⅰ).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과학기술부(2009). 특수학교 교육과정 해설(Ⅱ).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과학기술부(2009). 특수학교 기본교육과정 음악 교사용 지도서.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권덕원, 석문주, 최은식, 함희주(2006). 음악교육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 권보나(2005). 음악수업내용에 대한 중학생들의 인식조사 연구 :양평군 소재 중학교 2,3학년을 중심으로.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순황(2008). 특수교육 교과교재 연구 및 지도법. 서울: 일문사.
- 권은영(2006). 청각장애학교 음악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관일(1994). 청각장애아의 음악지도에 관한 소고. 특수교육학회지, 15(5), 5-30.
- 김순연(2006). 청각장애학교 음악교육 실태 및 활성화 방안.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승국, 김영옥, 황도순, 정인호(1998). 청각장애 아동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김은지(2003). 중학교 음악교육 실태 조사 연구: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중예(2010). 음악 감상 교육을 통한 주의력 결핍 · 과잉 행동장애

- (ADHD) 청소년의 문제 행동 개선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수(2009). 미국, 독일, 호주의 음악 교육 분석에 따른 한국에서 효과적인 음악 수업 지도 방안. 서울시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영(2000). 특수학교 음악수업 실태 및 문제점 :부산·대구·경상남·북도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부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욱(2007). 청각장애 아동교육의 이해. 서울: 학지사.
- 김윤근(2003). 청각장애학교 미술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질적 연구.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숙(2007). 음악교육이 인격형성에 미치는 영향.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정(2005).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청각장애 특수학교 중학부 영어교육 실태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미(2006). 학습장애아의 음악치료를 위한 지도방안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경훈(2009). 다문화 교육으로서 음악 교육의 필요성과 역할. 예술교육연구, 7(1), 93-111.
- 송은경(2002). 중·고등학교 음악교사의 직무만족도(Job Satisfaction)에 관한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영조, 이규식, 김병하, 석동일(1990). 청각장애아 교육. 대구: 대구대학교출판부.
- 이규식·국미경·김종현·김수진·유은정·권요한·강수균·석동일·박미혜·김시영·권순황·정은희·이필상(2004). 청각장애아 교육. 서울 : 학지사.
- 이소영(2005). 중학교 음악 감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조은(2007). 특수학교의 음악교육 실태와 방법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 특

- 수학교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연(2008). 음악교육이 인격형성에 미치는 영향.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홍수(1990).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서울: 세광출판사.
- 이희영(2003). 학교음악수업에 대한 중학생들의 인식조사 연구 :대전광역시 중학생 2, 3학년을 대상으로.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경화(2006). 특수학교 음악교과의 이론과 실제 :청각장애학교의 음악교육. *교원교육*, 22(2), 188-202.
- 전혜경(2008). 동기유발을 중심으로 한 효과적인 음악감상 지도 방안.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현진(2007). 중학교 음악과 기악교육의 효과적인 지도방법론.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혜영(2006). 농촌지역 소규모학교 음악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주시 중학교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요아(2010). 서울지역 중학교 1학년 음악의 생활화 수업 실태 조사연구 :2007년 음악과 교육과정 중심으로. 이화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사문(2006).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청각장애 특수학교 중학부 사회과 교육운영 실태.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성욱(2009). 시각·지체·청각장애학교 과학 교과교육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혜정(2007). 중학교 음악교육이 인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Gardner, H. (1993). *Multiple intelligence: The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Basic Books.
- Choksy, L., Abramson, R. M., Cillespie, A. E., Woods, D., & York F.

(2001). *Teaching music in the twenty-first century*(2nd ed.).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 Hall.

<http://www.newsen.com>



**【설 문 지】**

**청각장애 중학교 음악교육의 실태(교사용)**

존경하는 특수교육선생님 안녕하세요?

특수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지요? 저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에서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본 설문지는 청각장애 중학교 음악교육의 실태 및 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한 것으로, 청각장애 학교 음악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고 질문지를 부탁드리게 됨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선생님께서 응해주신 설문지의 결과는 연구에만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본 설문지는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요시간은 15분 내외입니다.

2010년 5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나 회 정 올림

● 응답요령

각 문항의 응답에 해당되는 항목을 골라 그 번호 앞의 \_\_\_부분에 √로 표시해주시거나, ( ) 안에 간략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 기초조사

1. 선생님의 성별:

\_\_\_\_\_ ① 남

\_\_\_\_\_ ② 여

2. 선생님의 연령:

\_\_\_\_\_ ① 30세 미만

\_\_\_\_\_ ② 30세~39세

\_\_\_\_\_ ③ 40세~49세

\_\_\_\_\_ ④ 50세 이상

3. 특수음악교육 경력:

\_\_\_\_\_ ① 3년 미만

\_\_\_\_\_ ② 3년 이상 10년 미만

\_\_\_\_\_ ③ 10년 이상 20년 미만

\_\_\_\_\_ ④ 20년 이상

4. 교사자격증 소지 여부:

\_\_\_\_\_ ① 음악교육(전공: \_\_\_\_\_ )

\_\_\_\_\_ ② 특수교육

\_\_\_\_\_ ③ 음악 + 특수교육

\_\_\_\_\_ ④ 기타( \_\_\_\_\_ )

5. 근무학교 소재지:

\_\_\_\_\_ ① 광역시 이상

\_\_\_\_\_ ② 소도시

6. 수화 사용 능력:

\_\_\_\_\_ ① 초급 수준

\_\_\_\_\_ ② 중급 수준

\_\_\_\_\_ ③ 고급 수준

## Ⅱ. 학교 음악실 환경조사

1. 음악실 여부:

- |  |            |
|--|------------|
| _____ ① 있음                             | _____ ② 없음 |
| _____ ③ 기타(                          ) |            |

2. 음악실 방음시설유무:

- |  |            |
|--|------------|
| _____ ① 있음                             | _____ ② 없음 |
| _____ ③ 기타(                          ) |            |

3. 음악실 악기보유(복수응답가능):

- |                                       |  |
|---------------------------------------|--|
| _____ ① 피아노                           |  |
| _____ ② 리듬악기연주용(큰북, 작은북, 멜로디언, 리코더 등) |  |
| _____ ③ 트럼펫                           | _____ ④ 트럼본                            |
| _____ ⑤ 바이올린                          | _____ ⑥ 첼로                             |
| _____ ⑦ 가야금                           | _____ ⑧ 해금                             |
| _____ ⑨ 드럼                            | _____ ⑩ 신디사이저                          |
| _____ ⑪ 오카리나                          | _____ ⑫ 하모니카                           |
| _____ ⑬ 단소                            | _____ ⑭ 기타(                          ) |

3-1. 학생들 지도 경험이 있는 악기:

- |                                       |  |
|---------------------------------------|--|
| _____ ① 피아노                           |  |
| _____ ② 리듬악기연주용(큰북, 작은북, 멜로디언, 리코더 등) |  |
| _____ ③ 트럼펫                           | _____ ④ 트럼본                            |
| _____ ⑤ 바이올린                          | _____ ⑥ 첼로                             |
| _____ ⑦ 가야금                           | _____ ⑧ 해금                             |
| _____ ⑨ 드럼                            | _____ ⑩ 신디사이저                          |
| _____ ⑪ 오카리나                          | _____ ⑫ 하모니카                           |
| _____ ⑬ 단소                            | _____ ⑭ 기타(                          ) |

4. 음악실에 비치된 기자재 보유 현황:

- |                 |                |
|-----------------|----------------|
| _____ ① 프로젝션 TV | _____ ② 컴퓨터    |
| _____ ③ 오디오     | _____ ④ CD플레이어 |

\_\_\_\_\_ ⑤ 신디사이저                      \_\_\_\_\_ ⑥ 기타(                      )

5. 음악실 외 음악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여부

(예, 사물놀이실, 노래방실 등):

\_\_\_\_\_ ① 있음(예:                      )                      \_\_\_\_\_ ② 없음

\_\_\_\_\_ ③ 기타(                      )

### Ⅲ. 교육과정

1. 현재 사용 중인 교육과정은 어떤 것입니까?

\_\_\_\_\_ 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_\_\_\_\_ ②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 기본교육과정

\_\_\_\_\_ ③ 기본교육과정

\_\_\_\_\_ ④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수정

\_\_\_\_\_ ⑤ 기타

2. 중학부 음악 수업의 운영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1주 (                      회), 1회 당 (                      분)

3. 귀교의 음악 교과 수업 시수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① 적당함                      \_\_\_\_\_ ② 적당하지 않음

\_\_\_\_\_ ③ 잘 모르겠음

4. 사용하고 계시는 교과서가 청각장애학생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① 적합함

\_\_\_\_\_ ② 부분적으로 적합함

\_\_\_\_\_ ③ 적합하지 않음

5. 음악 교과 내용 영역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도하시는 영역은 어느 영역입니까?

\_\_\_\_\_ ① 노래 부르기                      \_\_\_\_\_ ② 악기 연주하기

\_\_\_\_\_ ③ 음악 만들기                      \_\_\_\_\_ ④ 감상하기

6. 지도하시는 영역 중 청각장애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영역은 어느 영역입니까?

- \_\_\_\_\_ ① 노래 부르기                      \_\_\_\_\_ ② 악기 연주하기  
\_\_\_\_\_ ③ 음악 만들기                      \_\_\_\_\_ ④ 감상하기

7. 교육과정 운영상 청각장애학교에서 음악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필요하다.                      \_\_\_\_\_ ② 보통이다.                      \_\_\_\_\_ ③ 필요하지 않다.

8. 음악교육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학생들의 인성발달                      \_\_\_\_\_ ② 교육과정에 있기 때문에  
\_\_\_\_\_ ③ 학생들의 잠재능력 개발                      \_\_\_\_\_ ④ 삶의 질 향상  
\_\_\_\_\_ ⑤ 학생들의 청능향상을 위해                      \_\_\_\_\_ ⑥ 기타

9.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서 정규 음악 수업 외에 음악활동을 하는 시간들이 있다면 어떤 시간이 있습니까?(복수응답가능)

- \_\_\_\_\_ ① 계발활동  
\_\_\_\_\_ ② 특기 적성  
\_\_\_\_\_ ③ 방과후 프로그램  
\_\_\_\_\_ ④ 없음  
\_\_\_\_\_ ⑤ 기타(                      )

#### IV. 교수 · 학습 방법

1. 선생님께서 주로 사용하는 교재 및 자료는 무엇입니까?

- \_\_\_\_\_ ① 교과서                      \_\_\_\_\_ ② 쉬운 악보                      \_\_\_\_\_ ③ 다른 학년 교과서  
\_\_\_\_\_ ④ 직접 제작하여 사용  
\_\_\_\_\_ ⑤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다운받아 사용  
\_\_\_\_\_ ⑥ 기타(                      )

2. 수업 시 어떤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하십니까?

- \_\_\_\_\_ ① 수화                      \_\_\_\_\_ ② 수화 + 구화  
\_\_\_\_\_ ③ 구화                      \_\_\_\_\_ ④ 기타(                      )

3. 선생님께서 '노래 부르기'를 지도하실 때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선 순위로 1, 2, 3을 적어주세요.

- \_\_\_\_\_ ① 수화                      \_\_\_\_\_ ② 피아노 반주 듣고 따라 부르기  
\_\_\_\_\_ ③ 구화                      \_\_\_\_\_ ④ CD플레이어 듣고 따라 부르기  
\_\_\_\_\_ ⑤ 동영상 보고 따라 부르기      \_\_\_\_\_ ⑥ 거의 지도하지 않음  
\_\_\_\_\_ ⑦ 기타(                      )

4. 선생님께서 '악기 연주하기'를 지도하실 때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로 1, 2, 3을 적어주세요.

- \_\_\_\_\_ ① 개별 지도                      \_\_\_\_\_ ② 짝끼리 연습  
\_\_\_\_\_ ③ 시범보이기                      \_\_\_\_\_ ④ 동영상  
\_\_\_\_\_ ⑤ 거의 지도하지 않음              \_\_\_\_\_ ⑥ 기타(                      )

5. 선생님께서 '음악 만들기'를 지도하실 때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로 1, 2, 3을 적어주세요.

- \_\_\_\_\_ ① 작곡지도                      \_\_\_\_\_ ② 가사 만들기 지도  
\_\_\_\_\_ ③ 리듬 만들기 지도                      \_\_\_\_\_ ④ 뮤지컬창작  
\_\_\_\_\_ ⑤ 판소리창작                      \_\_\_\_\_ ⑥ 거의 지도하지 않음  
\_\_\_\_\_ ⑦ 기타(                      )

6. 선생님께서 '감상하기'를 지도하실 때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선 순위로 1, 2, 3을 적어주세요.

- \_\_\_\_\_ ① 동영상                      \_\_\_\_\_ ② CD플레이어  
\_\_\_\_\_ ③ 자막비디오                      \_\_\_\_\_ ④ 외부전문인초빙  
\_\_\_\_\_ ⑤ 공연장방문                      \_\_\_\_\_ ⑥ 거의 지도하지 않음  
\_\_\_\_\_ ⑦ 기타(                      )

7. 선생님께서 음악교과를 지도하시면서 아래 항목들을 사용하셨던 경험이 있다면 표시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느 영역에 적용하셨는지 <보기>에서 번호를 찾아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기>

- |           |           |
|-----------|-----------|
| ① 노래 부르기  | ② 악기 연주하기 |
| ③ 음악 만들기  | ④ 감상하기    |
| ⑤ 적용하지 않음 |           |

- \_\_\_\_\_ 1) 유리드믹스  
\_\_\_\_\_ 2) 시창·청음  
\_\_\_\_\_ 3) 즉흥연주  
\_\_\_\_\_ 4) 코다이의 리듬읽기(예: 티리티리 타타)  
\_\_\_\_\_ 5) 코다이의 손기호  
\_\_\_\_\_ 6) 오르프의 오스티나토, 보르둔을 활용한 수업  
\_\_\_\_\_ 7) 오르프의 학습매체들 활용하여 수업하기  
(예: 말, 움직임, 노래, 악기연주, 듣기 등)

8. 선생님께서 가장 잘 지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어느 영역입니까?

- |                                  |                 |
|----------------------------------|-----------------|
| _____ ① 노래 부르기                   | _____ ② 악기 연주하기 |
| _____ ③ 음악 만들기                   | _____ ④ 감상하기    |
| _____ ⑤ 기타(                    ) |                 |

9. 선생님께서 가장 지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어느 영역입니까?

- |                                  |                 |
|----------------------------------|-----------------|
| _____ ① 노래 부르기                   | _____ ② 악기 연주하기 |
| _____ ③ 음악 만들기                   | _____ ④ 감상하기    |
| _____ ⑤ 기타(                    ) |                 |

10. 선생님께서 가장 지도하시기 즐거운 영역은 어느 영역입니까?

- |                                  |                 |
|----------------------------------|-----------------|
| _____ ① 노래 부르기                   | _____ ② 악기 연주하기 |
| _____ ③ 음악 만들기                   | _____ ④ 감상하기    |
| _____ ⑤ 기타(                    ) |                 |

10-1) 10번과 같이 √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_____ ① 학생들의 장애 때문  | _____ ② 교사의 능력과 의지가 있기 때문        |
| _____ ③ 프로그램의 다양성   | _____ ④ 가르치는 방법의 노하우가 생겨서        |
| _____ ⑤ 학생들의 흥미가 많음 | _____ ⑥ 기타(                    ) |

11. 선생님께서 가장 지도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영역은 어느 영역입니까?  
 \_\_\_\_\_ ① 노래 부르기 \_\_\_\_\_ ② 악기 연주하기  
 \_\_\_\_\_ ③ 음악 만들기 \_\_\_\_\_ ④ 감상하기  
 \_\_\_\_\_ ⑤ 기타( )

- 11-1) 11번과 같이 √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① 학생들의 장애 때문 \_\_\_\_\_ ② 교사의 능력과 의지가 부족  
 \_\_\_\_\_ ③ 프로그램부족 \_\_\_\_\_ ④ 가르치는 방법의 노하우를 몰라서  
 \_\_\_\_\_ ⑤ 음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 부족  
 \_\_\_\_\_ ⑥ 기타( )

12. 학생들의 음악생활화를 위해 어떤 과제를 주로 내주십니까?  
 \_\_\_\_\_ ① 악기연습해오기  
 \_\_\_\_\_ ② 노래 외워오기  
 \_\_\_\_\_ ③ 음악회 다녀온 후 감상문 쓰기  
 \_\_\_\_\_ ④ 좋아하는 음악목록 작성해오기  
 \_\_\_\_\_ ⑤ 기타( )

13. 음악을 지도하실 때 교사로서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_\_\_\_\_ ① 의사소통(수화)의 어려움  
 \_\_\_\_\_ ② 학생들의 인지능력  
 \_\_\_\_\_ ③ 교사의 전문성 부족  
 \_\_\_\_\_ ④ 학생들의 특성 파악이 어려움  
 \_\_\_\_\_ ⑤ 학생들의 동기유발이 어려움  
 \_\_\_\_\_ ⑥ 기타( )

14. 음악을 지도하실 때 어려움이 생기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십니까?  
 \_\_\_\_\_ ① 연수를 통해 전문성 신장  
 \_\_\_\_\_ ② 동료교사와 대화 및 상담  
 \_\_\_\_\_ ③ 동료장학이나 개인장학 실시  
 \_\_\_\_\_ ④ 거의 해결하지 않음  
 \_\_\_\_\_ ⑤ 기타( )



15. 효율적인 음악과 교수·학습방법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교사의 다양한 연수 기회의 확대
- \_\_\_\_\_ ② 음악교과와 관련된 시각자료 활용
- \_\_\_\_\_ ③ 음악 수업 시수 확대
- \_\_\_\_\_ ④ 다양한 학습 자료 준비
- \_\_\_\_\_ ⑤ 실기 위주의 교수·학습활동
- \_\_\_\_\_ ⑥ 교사의 의사소통능력(수화능력)

16. 선생님께서 청각장애학교의 음악수업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연수는 무엇입니까?

- \_\_\_\_\_ ① 청각장애학생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연수
- \_\_\_\_\_ ② 음악과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연수
- \_\_\_\_\_ ③ 악기 및 실기에 관한 연수
- \_\_\_\_\_ ④ 교수·학습 자료 개발에 관한 연수
- \_\_\_\_\_ ⑤ 교수활동의 의사소통을 위한 수화연수
- \_\_\_\_\_ ⑥ 기타(                    )

※ 이상의 질문 항목 이외에도 청각장애학교 음악교과와 관련하여 개선방안이나 바라는 점 등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에 자유롭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본 연구에 대한 결과를 알고자 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아래 칸에 ○를 표시해주십시오.

- 끝까지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2>

## 【설 문 지】

### 청각장애 중학교 학생들의 음악활동 실태(학생용)

친애하는 학생여러분! 안녕하세요?

본 설문지는 청각장애학교의 음악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알아보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청각장애학교의 음악교육의 발전을 위한 자료로 소중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각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익명으로 통계 처리 되어 오직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설문지 작성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학생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10년 5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나 희 정 올림

본 조사의 결과는 통계법 제 8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응답요령

각 문항의 응답에 해당되는 항목을 골라 그 번호 앞의 \_\_\_부분에 √로 표시해 주시거나, ( ) 안에 간략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 기초조사

1. 학생의 성별:

\_\_\_\_\_ ① 남                      \_\_\_\_\_ ② 여

2. 학생의 학년:

\_\_\_\_\_ ① 1학년                      \_\_\_\_\_ ② 2학년                      \_\_\_\_\_ ③ 3학년

3. 부모님의 농아여부:

\_\_\_\_\_ ① 어머니, 아버지 모두 농아인  
\_\_\_\_\_ ② 어머니나 아버지 중 한 분 농아인  
\_\_\_\_\_ ③ 어머니, 아버지 모두 청인

4. 지금까지 학교 외에 음악교육을 한 경험:

\_\_\_\_\_ ① 있다.                      \_\_\_\_\_ ② 없다.

5. 학생의 청력 수준:

\_\_\_\_\_ ① 경도                      \_\_\_\_\_ ② 중도                      \_\_\_\_\_ ③ 중등도  
\_\_\_\_\_ ④ 고도                      \_\_\_\_\_ ⑤ 농

6. 인공와우 수술:

\_\_\_\_\_ ① 수술함                      \_\_\_\_\_ ② 수술하지 않음

7. 보청기 착용 여부:

\_\_\_\_\_ ① 항상 착용함  
\_\_\_\_\_ ② 필요할 때만 착용함  
\_\_\_\_\_ ③ 착용하지 않음

## II. 음악소리의 인지 및 식별여부

1. 학생은 음악수업 시간에 얼마나 소리를 들을 수 있나요?  
\_\_\_\_\_ ① 소리가 잘 들림  
\_\_\_\_\_ ② 소리가 약하게 들림  
\_\_\_\_\_ ③ 소리가 들리지 않음
2. 학생은 악기소리를 구분할 수 있나요?  
\_\_\_\_\_ ① 구분할 수 있음                      \_\_\_\_\_ ② 조금 구분할 수 있음  
\_\_\_\_\_ ③ 구분할 수 없음
3. 음악 수업시간에 소리를 듣는데 방해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_\_\_\_\_ ① 보청기 착용이 불편함  
\_\_\_\_\_ ② 머리가 아픔  
\_\_\_\_\_ ③ 듣는 것이 귀찮음  
\_\_\_\_\_ ④ 기타(                      )
4. 가장 잘 들리는 일상생활소리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_\_\_\_\_ ① 자동차소리                                      \_\_\_\_\_ ② 기차소리  
\_\_\_\_\_ ③ 내 이름을 부르는 친구의 소리              \_\_\_\_\_ ④ 선생님의 수업소리  
\_\_\_\_\_ ⑤ 친구들의 떠드는 소리                      \_\_\_\_\_ ⑥ 가족들과 대화하는 소리  
\_\_\_\_\_ ⑦ 기타(                      )
5. 가장 잘 들리는 악기소리는 어떤 것이 있나요? (여러 개 √ 가능)  
\_\_\_\_\_ ① 징  
\_\_\_\_\_ ② 북  
\_\_\_\_\_ ③ 장구  
\_\_\_\_\_ ④ 팽과리  
\_\_\_\_\_ ⑤ 기타(                      )

### Ⅲ. 음악 교과의 선호도 및 인지도

1. 음악수업이 재미있나요?

\_\_\_\_\_ ① 재미있다.

\_\_\_\_\_ ② 보통이다.

\_\_\_\_\_ ③ 재미없다.

\_\_\_\_\_ ④ 잘 모르겠다.

1-1) 1번 문항에서 ①을 선택한 학생은 음악수업이 재미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_\_\_\_\_ ① 음악이 좋아서

\_\_\_\_\_ ② 선생님의 수업방법이 좋아서

\_\_\_\_\_ ③ 음악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_\_\_\_\_ ④ 악기 다루는 것이 좋아서

\_\_\_\_\_ ⑤ 노래하는 것이 좋아서 \_\_\_\_\_ ⑥ 기타( )

1-2) 1번 문항에서 ③을 선택한 학생은 음악수업이 재미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_\_\_\_\_ ① 음악이 어려워서

\_\_\_\_\_ ② 선생님의 수업방법이 재미없어서

\_\_\_\_\_ ③ 노래하는 것이 싫어서

\_\_\_\_\_ ④ 음악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_\_\_\_\_ ⑤ 원하는 것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_\_\_\_\_ ⑥ 기타( )

2. 음악 수업 중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어떤 것인가요?

\_\_\_\_\_ ① 노래 부르기(수화노래하기 등)

\_\_\_\_\_ ② 악기 연주하기(사물놀이 등)

\_\_\_\_\_ ③ 음악 만들기(리듬, 가락 등)

\_\_\_\_\_ ④ 감상하기(동영상 등)

\_\_\_\_\_ ⑤ 기타( )

3. 음악 수업 중 가장 즐거운 활동은 어떤 것인가요?

\_\_\_\_\_ ① 노래 부르기(수화노래하기 등)

\_\_\_\_\_ ② 악기 연주하기(사물놀이 등)

\_\_\_\_\_ ③ 음악 만들기(리듬, 가락 등)

\_\_\_\_\_ ④ 감상하기(동영상 등)

\_\_\_\_\_ ⑤ 기타( )

4. 음악 수업 중 가장 어려운 활동은 어떤 것인가요?

\_\_\_\_\_ ① 노래 부르기(수화노래하기 등)

\_\_\_\_\_ ② 악기 연주하기(사물놀이 등)

\_\_\_\_\_ ③ 음악 만들기(리듬, 가락 등)

\_\_\_\_\_ ④ 감상하기(동영상 등)

\_\_\_\_\_ ⑤ 기타( )

5. 가장 배우고 싶은 악기는 무엇인가요?(여러 개 √ 가능)

\_\_\_\_\_ ① 피아노

\_\_\_\_\_ ② 리듬악기연주용(큰북, 작은북, 멜로디언, 리코더 등)

\_\_\_\_\_ ③ 트럼펫 \_\_\_\_\_ ④ 트럼본

\_\_\_\_\_ ⑤ 바이올린 \_\_\_\_\_ ⑥ 첼로

\_\_\_\_\_ ⑦ 가야금 \_\_\_\_\_ ⑧ 해금

\_\_\_\_\_ ⑨ 드럼 \_\_\_\_\_ ⑩ 신디사이저

\_\_\_\_\_ ⑪ 오카리나 \_\_\_\_\_ ⑫ 하모니카

\_\_\_\_\_ ⑬ 기타( )

6. 다음 해당되는 항목에 √ 하세요.

\_\_\_\_\_ ① 나는 음악에 대해 잘 알고 있다.

\_\_\_\_\_ ② 나는 음악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7. 학생에게 음악 수업 중 가장 이해하기 쉬운 수업방법은 어떤 것인가요?

\_\_\_\_\_ ① 선생님의 설명 \_\_\_\_\_ ② 직접 해보는 방법

\_\_\_\_\_ ③ 프로젝션 TV를 통해 보는 수업 \_\_\_\_\_ ④ 친구들과 토론 수업

\_\_\_\_\_ ⑤ 컴퓨터를 활용하여 인터넷 사용하는 수업

\_\_\_\_\_ ⑥ 기타( )

8. 학생에게 음악 수업 중 가장 이해하기 힘든 수업방법은 어떤 것인가요?

\_\_\_\_\_ ① 선생님의 설명 \_\_\_\_\_ ② 직접 해보는 방법

\_\_\_\_\_ ③ 프로젝션 TV를 통해 보는 수업 \_\_\_\_\_ ④ 친구들과 토론 수업

\_\_\_\_\_ ⑤ 컴퓨터를 활용하여 인터넷 사용하는 수업

\_\_\_\_\_ ⑥ 기타( )

8-1) 1번 문항에 ①을 선택한 학생은 선생님의 설명이 힘든 이유는 무엇  
인가요?

- \_\_\_\_\_ ① 수화가 부족하다                      \_\_\_\_\_ ② 설명이 너무 빠르다  
\_\_\_\_\_ ③ 사용하는 단어의 뜻을 모르겠다    \_\_\_\_\_ ④ 설명이 부족하다  
\_\_\_\_\_ ⑤ 설명이 너무 짧다                      \_\_\_\_\_ ⑥ 기타( )

### Ⅲ. 음악의 생활화

1. 평소에 음악을 즐겨 듣는 편인가요?

- \_\_\_\_\_ ① 그렇다.                                      \_\_\_\_\_ ② 그렇지 않다.

2. 주로 무엇을 통해 음악을 접하나요?

- \_\_\_\_\_ ① TV    \_\_\_\_\_ ② 인터넷  
\_\_\_\_\_ ③ MP3    \_\_\_\_\_ ④ 오디오  
\_\_\_\_\_ ⑤ 라디오    \_\_\_\_\_ ⑥ 기타( )

3. 음악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 \_\_\_\_\_ ① 기분이 좋다                                      \_\_\_\_\_ ② 리듬이 느껴진다  
\_\_\_\_\_ ③ 시끄럽다    \_\_\_\_\_ ④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_\_\_\_\_ ⑤ 잠이 온다    \_\_\_\_\_ ⑥ 기타( )

4. 학교나 학교 밖에서 음악 발표를 해 본 경험이 있나요?

- \_\_\_\_\_ ① 그렇다.                                      \_\_\_\_\_ ② 그렇지 않다.

4-1) 4번 문항에 ①을 선택한 학생은 음악 발표를 하고 나서 어떤 기분이  
였나요?

- \_\_\_\_\_ ①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았다.  
\_\_\_\_\_ ② 사람들이 웃을까봐 창피했다.  
\_\_\_\_\_ ③ 연주를 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다.  
\_\_\_\_\_ ④ 내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_\_\_\_\_ ⑤ 기타( )



5. 음악회에 가 본 경험이 있나요?

\_\_\_\_\_ ① 있다.

\_\_\_\_\_ ② 없다.

5-1) 5번 문항에 ②을 선택한 학생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_\_\_\_\_ ① 갈 기회가 없어서

\_\_\_\_\_ ② 듣지 못하기 때문에

\_\_\_\_\_ ③ 재미가 없어서

\_\_\_\_\_ ④ 기타

6. 학생은 노래방에 가는 것을 좋아하나요?

\_\_\_\_\_ ① 그렇다.

\_\_\_\_\_ ② 그렇지 않다.

7. 가족 중에서 음악을 전공한 가족이 있나요?

\_\_\_\_\_ ① 있다.

\_\_\_\_\_ ② 없다.

8. 만약 내가 음악을 전공한다면 어떤 것을 전공하고 싶나요?

\_\_\_\_\_ ① 성악

\_\_\_\_\_ ② 기악(악기종류: \_\_\_\_\_ )

\_\_\_\_\_ ③ 작곡

\_\_\_\_\_ ④ 기타( \_\_\_\_\_ )

※ 질문한 내용 이외에 음악수업에 대해 학생이 하고 싶은 말이나 음악교과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 끝까지 설문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 【설 문 지】

### 청각장애 중학교 음악교과 실태(교사용자유의견란)

1. “어려운 점은 갈수록 순수 청각장애학생 뿐만 아니라 중복 장애학생들이 들어옴에 따라 한 반에 3명이면 3명 다 수준이 다르며, 각기 개별지도를 요하는데 시수는 1주에 1시간이어서 시간적으로, 환경적(학생구성)어려움이 있습니다.
2. “학생들의 가창학습이 구화사용에 도움이 되어서 음악실에 노래방기기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의 음악(노래부르기)에 대한 관심은 생각보다 많고, 모두(대부분) 좋아하고 있습니다.”
3. “장애에 상관없이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교과역량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해마다 같은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은 학년을 구성하는 학생들의 수준이 다르고 흥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다른 수준과 흥미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느냐는 연수도 아니고, 자료도 아닙니다. 교사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학생들에 대한 사랑이 좋은 수업으로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느 낌만으로도 음악을 좋아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도록 하는 것은 교사의 몫이고 의무입니다. 음악교육의 목적은 음악을 사랑할 줄 알고 좋아하는 학생으로 만드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청각장애교육의 음악 교육은 인간 승리의 일환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애 극복이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접근하기 힘든 분야를 연구하시는 선생님, 힘내십시오.”
4. “교사의 능력이 우선시 되어야만 학생들의 능력을 신장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음악의 전문적 지식 습득을 위한 연습 이전에 청각장애 아동의 음악적 능력을 바르게 찾아내고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다운 전문가들의 현실적인 교육(연수)의 장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설 문 지】**

**청각장애 중학교 학생들의 음악활동실태(학생용자유의견란)**

-쓴 그대로 옮김.

1. “저는 보청기 듣기연습이 많이 안해서, 시끄럽다,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요.”
2. “저는 기타를 배우고 싶어요.”
3. “저는 피아노를 하고 시파. 왜냐하면 피아노를 하면 듣기 좋아요~”
4. “학교에서 음악통해서 바이올린 배우고 싶습니다. 바이올린 있다면 빌릴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평소에 춤, 음악 좋아해서 많이 관심있을 것 같고요..ㅎ 그럼 여기 그만 쓸게요.”
5. “어떤 음악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나는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싶어요 오스트레일에 가고 싶은데 음악회에 드럼을 배우고 싶어요”
6. “짬있게수업하면좋겠습니다.”
7. “감사합니다. 음악할 때 절 잘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8. “끝까지 모르던 단어를 많이 가르치고 많은 경험해보고 싶은 악기를 경험 하길 바래고 있습니다.”
9. “노래부를 때 목소리에서 도레미파 솔라시도가있잖아요 그걸 정확히 인식 해서 알고싶음.”

10. “악기 잘 다루고싶다.”

11. “감사합니다.”

12. “여러 가지 악기다루는 것은 많았으면(많으면) 좋겠어요.”

13. “하지만 음악수업에 잘 들어 이해를 할 수 있다.”

14. “다양한 노래로 공부했으면 좋겠음. 가요등등”

15. “하지만 음악회를 경험없어요

음악회 꼭 가고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악, 성악을 좋아기 때문이에요! 재미있어요,자신가지고 있어요! 꼭 가고 싶어요 음악회에서 사람이 많아서 기분이 좋아요!”

16. “바이올린를 경험없어요! 빨리 배우고 싶어요 왜냐하면 소리를 아름다워요.”

17. “리듬악기와 가락악기를 많이 많이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노래를 많이 많이 배워주세요 재미있는 음악을 놀아주세요!! 그리고 음악 발표를 해본적이 없어요!! 음악 발표를 많이 참가해주세요!! 선생님~말을 빨라서 이해가 알아요!! 제가 똑똑해요? ㅋㅋ 선생님~ 큰 목소리로 들려주세요~ㅋㅋ

선생님~ 소극적하지마세요!!ㅋㅋㅋ 선생님~ 예쁜 척 하지 마세요~ㅋㅋ 말을 빨라해주세요~ 잘 ~ 부탁드립니다!!”

18. “선생님 설명 천천히 하고, 잘 가르쳐 주고 싶어요

저는 노래랑 드림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 나 잘 가르쳐 주시고 싶어요 나는 노래랑 드림 잘하고 싶어요 노력 많이 해야돼요 ㅠㅜ  
난 공연 보여주고 싶어도 실력이 부족해요~ㅠㅜ 으앙~

선생님 나만 잘 가르쳐주고, 잘 해주고 싶어요

난 노력 해야된다 ~ㅋㅋ 선생님 ~♥ 힘들지만 가르쳐 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19. “선생님이 설명을 빨라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설명을 천천히 해서 좋겠어요. 나는 원래 음악이 제일 좋았어요. 음악공부를 이해하고 싶어요~! 제발주세요~”

20. “피아노학원에서 피아노는 아주좋았습니다. 그런데 실수를 있고, 어색하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음악공부를 게이름, 문제, 박자,...등을 했습니다. 앞으로 피아노학원에서 열심히 합니다!! 파이팅!!! 이지만 어렵다!!”

21.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22. “저는 바이올린하는 것 좋아해요 왜냐하면 재미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 배운적 없기 때문이니까 직접해보고 싶어요 한번 기회 해주실수 있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23. 저는 바이올린하는 것 좋아해요 왜냐하면 재미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 배운적 없기 때문이니까 직접해보고 싶어요 한번 기회 해주실수 있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24. 안녕하세요? 난 드럼을 직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나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요.

25. 저는 어릴 때 노래나 음악을 듣기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고 안배웠어요. 저는 모두 다 악기를 하는 것도 궁금해요 한번해보고 싶었어요. 재미있을까 생각했었어요. 근데요 음악수업할 때 선생님은 악기하지 않고 강 작곡하는데요 저는 가장 좋아하는 것은 악기하는것도 좋아해요. 저는 배운적 없어요. 요즘 애들은 잘하고 있는데 저는 부러웠어요. 그래서 지금은 악기 배

우는 것이 있으면 배울려고요^^ 저는 모두다 좋아해요 왜냐하면 재미있고 궁금성 너무 많아요 저 요즘 연주회에 가보니까 엄청 재미있더라고요! 저는 4학년때 잘 몰라서 피아노를 쳐보니까 재밌고 유치원 때 노래를 부르니까 참 신났어요. 그런데 지금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26. 옛날에 음악학원나이 5세~ 2010년 2월 26일 15세 끝났어요. 5세 b피아노에서 선생님은 알려주기 보청기 소리를 들려요 피아노책을 쉬워요. 피아노학원을 좋아요. 음악 수업이 밤에서 끝났다. 음악이 수업이 시험을 대회를 항상 이뤘다 피아노대회19회, 20회,30회 연주회를 했어요

27.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저는 계속 음악을 배우고 싶어요. 왜냐하면 기분이 좋기 때문입니다. 저는 4학년때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서 음악학원에 다녀지만 처음에 좋았다가 어려웠 음악학원을 포기했습니다. 저는 다시 피아노를 배우고 싶지만 어머니께서 포기한다고 안된다고 했어요.ㅠㅠ 저는 결국 못다니고 집에서 혼자 배우고 있지만 진도가 잘 안가요.ㅠㅠ 그 외엔 다른 음악을 좋아하는답니다. 저는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저는 매일 음악을 듣고 부르고 음악도 듣고 조용하고, 재미있고 감동적인 음악을 들어보고 또 배우고 싶어요.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계세요~! ^^

28. 나는 저런 노래말고 딴 노래를 배우고 싶다. 이유는 지금 배우고 있는 노래가 재미없고 느낌도 좋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티비에서 나오는 노래를 배우고 싶다.

29. 음악 수업할 때 선생님이 수화를 보고 있는데 이해 좀 안되니까 너무 죄송하구요. 저는 사실은 음악 수업을 너무 재미없어서 포기싶지만 꼭꼭 참고 있었다. 선생님께서 꼭 이해주셔서 바라고 저는 꼭 열심히 하겠습니다.

30. 안녕하세요! 소리가 듣고 싶어요!